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ik@ownnewengland.com
ClearPai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우린 불편한 교회 어색해하면서 닥아가자”

다문화선교교회 변호사 출신 김동섭 목사 취임 어색한 다문화, 그렇지만 2-3세를 위한 영적인 집 비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일 반적이지 않은 교회에 특이한 경력의 목사가 취임했다. 국제결혼 가정 여성들이 중심이 되 어 만든 국제선교교회가 이름을 바꾼 다문화선 교 교회에 1.5세대 변호사 출신의 김동섭(Sam Kim, 49)목사가 취임했다.

11일 취임예배를 갖는 1.5세대 김동섭 목사 는 “국제 선교회는 불편함을 내포하고 있다. 국제 결혼은 다른 문화가 만나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낸다. 백인 주류 교회서도 불편하고, 한 인 이민교회서도 불편하다. 국제 선교회 안에 서도 불편했다” 고 새로운 다문화선교 교회로 이름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김 목사는 “다문화라는 뜻은 다른 세대를 말한다. 어디든 한구석 문화에 어색함이 있는 분들이 같이 어색해 하면서 닥아가자” 는 것

이다.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성경말씀처럼 교회들은 예루살렘은 물론 땅 끝 까지 갔다. 그럼에도 사마리아가 가장 불편하 다. 그게 우리의 선교다. 바로 불편한 곳” 이 라고 김목사는 말한다.

우리가 가장 불편해 하는 곳에 뛰어들어 닥 아 가겠다. 들리는 말은 쉽지만 행동하기란 여 간 불편하고 어색한 게 아니다. 그러나 김목사 의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고개가 끄덕여 진다. 다문화선교 교회에서 김목사는 임기도 없고 보수도 없다. 50을 바라보는 가장이 선택하기 엔 가장 불편한 길 중이 하나이다.

취임이 쉬웠던 것은 아니다. 다문화선교 교 회 취임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김 목사는 “ 절대로 기대하지도 생각지도 않았다” 고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40대 중반에 ‘느닷없이’



다문화선교 교회에 취임한 1.5세대 변호사 출신의 김동섭 (Sam Kim, 49)목사

신학교를 선택해 지난 12월에 목사 안수를 받 았다. 뉴욕의 중국인 교회, 현재 다닌 미국교회 등 한인사회와 먼 영어권 부임지를 저울질하 고 있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인연이 그를 다 문화선교 교회로 이끌었다.

변호사 재임시절 친하게 ▶▶2면으로 계속

박스오피스 1위 〈터널〉 500만 돌파

〈부산행〉에 이어 두번째 천만 관객 기대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 터널 (Tunnel)〉이 한국 개봉 12일 동안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은 채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1100만 관객을 돌파한 〈부산행〉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천만 관객 기대작으로 떠 올랐다.

언론, 평단, 해외 영화제 극찬과 관객들의 뜨거운 호평이 입소문으로 이어지면서 2주 연 속 극장가를 장악하며 흥행 돌풍 중인 〈터널 Tunnel〉은 8월 26일(금)에 보스톤을 비롯한 뉴욕, 뉴저지, 시카고, 하와이, 토론토, 밴쿠버 등 북미 30여개 주요 도시에서 전격 개봉한다.

집으로 가는 길, 갑자기 무너진 터널 안에 고립된 한 남자와 그의 구조를 둘러싸고 변해 가는 터널 밖의 이야기를 그린 리얼 재난 드 라마 〈터널 Tunnel〉은 한국 개봉 2주차 주말 극장가도 완벽하게 장악했다.

〈터널〉은 8월 19일(금) 227,353명, 8월 20일 (토) 463,353명, 8월 21일(일) 428,255명을 기록 , 총 1,118,961명의 관객을 ▶▶6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 기 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From \$1160

대한 항공 (뉴욕 경유)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1.617-424-8956

*\$1160.00는 대한 항공(뉴욕 경유) 요금입니다.
해당 출발일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발권기한은 출발일 14일 전 또는 9/30까지입니다. 해당 금액대의 좌석 수는 한정되어 있으며, 예약상황, 항공사 사정 등에 따라 가격 및 규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 오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의전화 : 866-619-4223(Toll Free) / 617-424-8956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카카오톡 : 아이디 IACEKOREA
•24시간 예약센터 : 1-877-489-4223 (영어, 일본어 상담 only)

함인항공권 전문
IACE TRAVEL

BERKSHIRE HATHAWAY | N.E. Prime Properties
Real Estate Services



에나 정
최고의 전문가로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지니스 · 상업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JMS, CRS, GRS, SRES, ABR
617.780.1675
aenaj@ownnewengland.com
www.aenaj.com

재능교육
JEI



JEI English JEI Reading & Writing
JEI Math JEI Problem Solving Math
Pre-K부터 대학까지

FDart 학문명예 학자
www.jeilearning.com
JEI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308.9977
EMAIL: burlington@jeilearning.com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나 원 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이번엔 한국 사드배치 지지 백악관 청원 운동

평통 중심 미국에선 사드배치 지지 청원운동 시작
사드배치 반대 백악관 청원 운동은 10만명 넘어 종료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국의 사드배치 반대 백악관 청원 운동이 10만명을 넘겨 백악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미주에서는 사드배치 찬성 백악관 청원 운동이 시작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는 25일 발표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 지지 결의문을 통해 “미국에 살아가는 한인으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에 방어하기 위한 한미정부의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에 적극 지지한다”며 “백악관 청원사이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찬성하는 내용의 청원 서명운동에 한인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악관 청원사이트에 게재된 청원 내용은 “사드는 방어용이며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인체에 해롭다는 말과 달리 사드배치는 인체에 해가 없다”면서 “사드배치는 올해만 벌써 30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응답

”이라고 적시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게시된 사드 반대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30일 만에 10만명이 넘어선 것과 관련, 보스턴을 비롯한 미주 동포들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사이트의 사드배치 찬성의 내용은 글은 올린 지 30일 되는 오는 9월 11일까지 10만명이 이번 서명에 동참하게 되면 백악관은 60일내에 이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백악관 청원사이트(petitions.whitehouse.gov)에서 서명운동에 동참하려면 계좌(Account)를 개설하고 찬성 버튼을 누르면 된다. 한선우 평통 보스턴협의회 회장은 “찬성 버튼을 누른 후 반드시 마지막으로 ‘컨펌’ 버튼까지 눌러야 한 표가 행사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43면 평통광고 참조〉

hsb@bostonkorea.com

변호사 커리어 버리고 무보수 다문화 선교 교회 취임

2007년에는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촉망받는 변호사로 뽑혀

▶▶1면에 이어서

지난 최동혁(Donald Choi)씨가 자기기가 있던 노인회의 회장인 유영심 국제선 교회 장로를 소개시켰다. 국제선 교회를 두고 “필요하면 설교를 해드리겠다” 했는데 결국 국제선 교회에서 그를 잡았다.

국제선 교회 유영심 장로는 “최동혁씨가 노인회를 많이 도와 줬다. 그래서 늘 교회를 다니라고 권했었는데 한 사람이 교회를 시작하면 나가겠다. 샘김(김동섭) 목사님이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목사에 따르면 결국 최동혁씨 “한사람의 영혼을 위해 한 목사와 교회 모든 교인이 나섰다”는 것이다. 결국 김목사는 교회에 취임했고 최동혁씨는 세례를 받고 이 교회 교인이 됐다.

김 목사는 “설교도 영어로 한다. 한인들과 사역한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2세 들을 걱정한다. 2-3세의 영적인 집이 어디냐를 고민하면서 이 길을 걷게 됐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30대에 로펌 게스머 업디그루브의 파트너가 됐다. 변호사로서 2007년 매사추세츠 가장 촉망받는 신세대 변호사로 뽑혀 변호사 전문잡지인 슈퍼라이어의 표지모델이 되기도 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변호사 길을 접고 임마누엘 가스펠 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곳에서 승진을 두고 고민을 하던 그는 “신 학교를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2년을 고민했다. 김목사 자신은 무려 10가지 이유를 나열하며 버렸지만 그 이유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버렸다. 문득 다니던 미국교회 신도 한 가정을 만나러 가라는 음성을 듣고 찾아간 사람이 고든 칼리지에 재학중인 사람이었다. 장학금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라고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은 2년동안 같이 찬양팀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장학금도 자신이 50%를 모으면 학교에서 나머지를 매칭해주는 방법이었다. 변호사 시절 투자를 유지하던 일을 했는데 딱 맞는 것이었다. 100장의 편지를 보냈는데 흰두고, 무교 이런 사람들이 50%를 기부했다. 마지막 반대자로 생각했던 아내도 “내가 먹여 살리겠다”며 신학교를 허락했다.

실제로 그가 변호사 직을 택한 것도 9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결심한 것이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내용 중에 “가



장 낮은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라는 것을 떠올리게 했으며 “가장 힘없는 자, 낮은 자를 위해 누가 나서겠느냐”는 음성 “저요” 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지금은 김목사의 말처럼 ‘가장 불편한 곳’에 나섰다. 커리어를 버리고 무보수로 나선 다문화선교 교회에서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섬터를 만들 계획이다. 지난 5월부터 적응 기간을 거쳐 9월 11일 정식 취임한다. 교회 이름은 다문화 선교교회다.

취임예배 : 9월 11일 일요일
오후 1시

장소 : 57 PETERS ST.
N. ANDOVER, MA 01845
editor@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보철 전문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턴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시민협회, 미셸 우 시의장에게 2,800불 전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가 대만계 현 보스톤 시의장인 미셸 우 광역구 의원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갖고 \$2800을 후원했다.

한인들의 미국 정치 참여를 기치로 한인 사회의 팩 (Political Action Committee)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올스톤 하버드 예비뉴 소재 한국가든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날 만찬에 미셸 우 의원은 남편 카너 페왈스키(Conor Pewarski)씨와 20개월된 아들 블레이스(Blaise Pewarski)군 그리고 매니저 쉐론 더칸(Sharon Durkan) 씨와 함께 참여했으며 이경해 시민협회 회장 부부, 김성균 시민협회 이사장 부부 등 17명이 함께 참여했다. 시민협회 이사들과 정치인턴으로 참여한 학생들, 그리고 부모들이 주를 이뤘다.

미셸 우 의원은 "정부의 일원으로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하고 다음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게 된 것에 너무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한인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전했다.



대만계 현 보스톤 시의장인 미셸 우 광역구 의원

우 의원은 또 "시민협회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정치인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격려했다.

미셸 우 시의원 사무실에는 현재 장준혁, 장원영, 서민기 학생 3명이 시민협회 정치인턴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미셸 우 시의원은 올해 1월 4일 월요일 13명의 시의원들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아시안으로 처음인 역사적인 순간을 아시안 여성이 이뤄낸 쾌거였다. 30세의 로슬린데일 거주 변호사출신인 미셸 우 시의장은 겨우 시의원 임기를 한 번 지낸 후 바로 시의장으로 선출되는 기적을 일궈냈다. 미셸 우 의장은 최초의 비백인 여성 시의장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단지 2명의 시의장만



한인들의 미국 정치 참여를 기치로 한인사회의 팩(Political Action Committee)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올스톤 하버드 예비뉴 소재 한국가든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 여자였다. 1976년 루이지 데이 Hicks와 2007년 및 2008년 머린 피니 의장 두 여성밖에 없었다.

2013년에 광역구 2위로 당선됐으며 2015년 또다시 2위로 당선됐다. 미셸 우 의원은 당선 이후 푸드 트럭 허가 절차 간소화, BOYB 등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법안 발의와 시정부의 소

수민족 통역 서비스 강화 등 이민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미셸 우 의원은 매달 1번씩 소수민족 언론을 초청해 지난 한달간 보스톤 시의회의 주요 의정 활동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보스톤 시의 정책이 소수민족에게도 자세히 전

달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수민족 의원들에게 시정을 자세하게 브리핑하는 의원은 미셸 우 의원이 처음이다.

미셸 우 의원을 위한 한인사회내 기금모금은 시민협회와 스티븐 김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매년 후원의 밤을 통해 개최하고 있다.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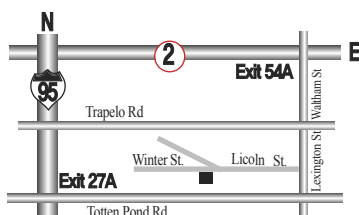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SAT Plus Fall Schedule 2016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10, 2016

Class	Time	
PSAT / 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미 대선의 해, 시민권 신청자 소폭 늘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가 8월 13일 주최한 무료 시민권 취득 워크샵에 약 30여명의 한인들이 참가해 시민권을 신청했다.

렉싱턴 소재 성요한 교회에서 개최된 2016년 첫번째 워크샵에는 시민협회 이경해 회장을 비롯, 이사장 김성군 변호사, 추경석, 김혜선 이사가 참여해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점검, 사진촬영, 신분증 복사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시민협회 정지인턴, 스티븐서, 마이클 등, 임지윤 학생이 자원봉사자로 참가자들을 도왔다.

워크샵에 참가해 온 김성군 변호사는 “올해는 미대통령선거가 있어서인지, 더욱더 많은 동포들이 워크샵에 참여하였고, 총 30여명이 신청을 마쳤다. 원래 예정했던 마감시간 4시를 넘어 5시까지, 많은 자원봉사자의 노고가 돋보이는 행사였다” 고 밝혔다.

시민협회는 올해로 20년째 무료 시민권취득 워크샵을 개최해오고 있다. 97년 시작해 많은 한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불과 3-4년전까지만 해도 일년에 2번씩 워크샵을 개최하기도 했다.

해 회장은 “시민권 워크샵을 매년 2회씩 개최해 왔는데 점차 수가 줄어들어 결국 1년에 한번으로 줄였다. 지금의 인원은 1년에 한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숫자다” 고 워크샵을 줄인 이유를 말했다.

이경해 회장은 “그래도 꾸준히 워크샵에 대한 문의는 들어오고 있다. 그런 분들에게 급하신 분들은 변호사를 추천하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8월 워크샵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곤 한다” 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시민협회는 지난해부터 워크샵을 1년에 한 번씩만 개최해오고 있다. 이경



뉴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가 8월 13일 주최한 무료 시민권 취득 워크샵에 약 30여명의 한인들이 참가해 시민권을 신청했다

암에 대한 특별 건강세미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새생활센터는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스톤햄 소재 센터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에서 유방암, 전립선암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 건강세미나를 개최한다.



내과의 이용화 박사

이날 건강세미나 1부에서는 내과의 이용화 박사가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중심으로 원인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특별 강연을 갖는다. 2부에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건강 체조, 운동에 관한 강연이 이어지며, 3부에는 항암에 도움이 되는 건강 요리 전시 및 시식회가 진행된다.

세미나 후에 진료를 원하는 한인들에게 내과 진료와 치과 검진 및 건강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한인은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사전 예약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한하여 오렌지 라

인 오크그로브(Oak Grove) 역에서 무료셔틀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보스톤새생활센터는 지난 20여년간 무료진료, 독감백신 접종 등 보스톤 한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건강 세미나 시간 : 9월 17일 오후 2시 ~ 5시

주최 및 안내 : 보스톤 새생활 센터/대표: 송연호(전화 : 317-374-4786)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제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렌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우리가족
면역력 지킴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홍삼의
주요효능 면역력 개선 / 혈액순환, 고혈압 예방 / 혈당강하, 당뇨 합병증 예방 /
혈액순환 개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가려움증 / 간기능 개선



10% OFF
8월 26일까지



240g 홍삼정 구입시
30g(\$31 상당) 추가 증정



FREE
GIFT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U MART Burlington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모든 상품 배송 가능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김소월의 시 "새벽" 과 함께하는 시와 음악의 밤

한국 시의 세계화를 위한 걸음, 신작 가곡 발표 및 토론 진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김소월은 상상했을까. 소월의 시 <새벽>에 음악이 덧입혀진다. 그것도 4명의 작곡가가 각기 나름의 창작으로 만든 4곡의 가곡으로 변신한다. 그중의 단 한 명의 작곡가만이 한국인이다. 벽안의 작곡가들이 소월의 시를 작곡해 노래하고 토론을 벌이는 곳으로 한미 예술협회가 한인들을 초대한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있는 중견 작곡가 그룹 워드송(WordSong)과 한미예술협회 가 공동으로 계획한 특별한 콘서트가 9월 18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케임브리지 소재의 롱지 음악학교(Longy School of Music)의 피크먼 홀에서 한인들을 기다린다. 소월의 시가 미국의 음악과 어떻게 결합했는지 확인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다.

콘서트에서 먼저 김소월의 시 "새벽" 이 한글과 영어로 소개된다. 시를 가사로 4명의 작곡가들이 창작한 4곡의 가곡이 연주된다. 그 후 작곡가와 연주자 및 청중이 함께 참여하여 시와 음악에 대해 토론한다.

워드송(WordSong)그룹은2008년부터 꾸준히 이러한 독특한 방식의 음악

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론지 음악학교 교수인 하워드 프레이즌(Howard Frazin), 임마누엘 대학교 음악과장인 톰 슈나우버(Tom Schnauber), 민속음악 연주로 많은 활동 중인 젊은 작곡가 애덤 사이먼(Adam Simon),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김빛나(Binna Kim) 이렇게 4명의 작곡가가 참여했다.

이 중 유일한 한국인인 김빛나씨는 한국어 시에 작곡을 하였고, 그 외의 작곡가들은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소월의 시를 영어로 번역하여 발표해 온 남세교(Sekyo Nam Haines)씨의 번역 시를 바탕으로 작곡했다. 이 날 연주는 바리톤 데이비드 크라비츠(David Kravitz)와 피아니스트 린다 오즈본(Linda Osborn)이 맡는다.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문학으로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이바나 이(Yivanna Yi)가 통역을 맡는다. 같은 가사로 작곡된 4개의 곡이 어떻게 다른 생각과 느낌을 불러일으키는지 비교하기도 하고, 창작자와 연주자 및 청중의 입장에서 각각 어



(좌) 김소월 시인, (우) 유일한 한국인 작곡가인 김빛나씨



떻게 이 시와 곡들을 받아들였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연주를 맡은 바리톤 데이비드 크라비츠(David Kravitz)는 힘이 있으면서도 다양한 감성을 표현하는 목소리의 소유자로, 뉴욕 타임즈로부터 카리스마가 있고 곡의 해석이 훌륭하다는 평을 받았다.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의 연주를 비롯하여 카네기홀, 달라스 오페라 등 여러 콘서트 홀에서 공연했고 보스톤의 오디세이 오페라와 임마누엘 뮤직에서 많은 연주를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실내악과 반주로 많은 각

광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린다 오즈본(Linda Osborn) 은 보스톤 모던 오케스트라 프로젝트(BMOP)과 오페라 보스톤 등에서 활동하였다.

일시: 2016년 9월 18일 (일) 오후 4시
장 소 : Pickman Hall, Longy School of Music

27 Garden St., Cambridge, MA
입장료: 무료, 도네이션 환영

문의: 781-223-4411
(일요일에는 미터 파킹이 무료이며 레지던트 전용 구역에도 주차 가능)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환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환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션원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명작 삼행시, 영화 '터널' 무료티켓 이벤트 당첨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영화 <터널>의 26일 보스톤 개봉에 맞춰 보스톤코리아가 실시한 무료 이벤트에 13명의 당선자가 선정됐다.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보스톤코리아닷컴에서 4일간 실시된 무료 영화 티켓 이벤트였지만 총 27명의 독자가 참여하는 호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당선작들은 뛰어난 아이디어와 유머가 담긴 작이 많아 편집진들은 선정하는 내내 웃음을 참지 못할 정도였다. 1차에 17개

작품이 선정됐고 이중에서 적은 표를 받은 작품을 탈락시켜 최종 13개 당선작이 뽑혔다.

무료 티켓 교환권을 받게 될 당선자들은 보스톤코리아(bostonkorean@hotmail.com)에 티켓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보내거나, 보스톤코리아 사무실(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에서 무료 티켓 교환권을 직접 픽업하면 된다. 이메일로 받은 티켓은 프린트 해서 가져가면 매표소에서 2장의 티켓으로 교환할 수 있다. 티켓은 8월 29일

부터 9월 1일까지 평일 상영분의 영화만 무료 관람가능하다.

픽업은 8월 29일부터 보스톤코리아 사무실에서 가능하다.

보스톤코리아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부산행>은 26일 금요일부터 AMC 로 우스 보스톤 커먼에서 개봉한다. 당첨자와 당첨작은 다음과 같다.

hsb@bostonkorea.com

bonafide

하루하루 매일같이
정신없이 먹다보니
우울하게 끝이없이
배가 나와
두번 나와
나와 나와
오지게 나와서
달처럼 둥글게
수그러들지 않네.

도전

하염없이
정 주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배가 되는 그리움 때문에 때론
두렵습니다. 걱정마세요.
나와 우리는 덕분에 잘 있습니다.
오랜시간 이 그리움이 더 깊어지면
달려가 만날 수 있겠지요.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

너무더웠

배: 가 아프다.
두: 리번 두리번
나: 는 화장실을 찾는다.
하: 놀이 노래지고
정: 신이 아찔해진다
우: 이씨
오: 르막 길이다.
달: 려가다.
수: 치스러운 일은 안 생기길

ii33

하...터널에 갇히다니
정말 어떡하지
우리 가족과 다시는 볼 수 없는것일까.
배고파서 눈물이 난다
두리번 거려도 남은거는
나 하나뿐
오! 신이시여
달달한 초콜렛이라도 주소서
수분도 부족하다.나는..살수 있을까?

Burkean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마음에 드는게 없다.
우습지만 이것이 현실
배짱 두둑하게
두려운 것 하나 없는 척해보지만
나는 이도저도 아닌 잉여인간 같기만 하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가고
달이 떠오르는 저녁이 되고
수다라도 한판 신나게 몇 옛 친구가 보고
싶구나.

유펡남

하: 루루루
정: 신없는
우: 리들의 삶
배: 올 것도 아직 많고
두: 근두근 떨리는 일도 많고
나: 는 아직도 갈길이 멀지만 하지요.
오: 늘도 치열하게 살고 있는 나 자신에게
달: 곱한 커피 한잔과 함께 위로의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수: 고가 정~말 많더군요. ^^

SeanLee2

오우 썬~
달달한
수박먹었더니
배가 나와부렀서
두번먹고 세번먹고
나도먹고 너도먹고
하이고
정말로
우습다 티켓이 뭐간디

여기너무추워

하:늘이 참 푸르구나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인 오늘 같은 날
우:라질 일은 집어치우고 밖에 나가고
싶다.
배:시시 웃는 그대의 미소와
두:손가득 담기는 이 따스한 햇살
나:도 참 한심하네 지금 이런 상상이나
하고 앉아있고, 일이나 하자.

오:늘도 따스한 보스톤 햇살아래
달:곱한 말들을 그대와 속삭이며
수:다들 떨기는 개불, 일이나 해이지 흑.

보스톤 가을

하루종일~
정말 하루종일~
우리 남편만 바라봐요.
배가 나오고~
두상이 커도~
나는 우리 남편을 바라봐요.
오마이가드~

달덩이 처럼 커진 배~
수없이 봐도 좋아요.

Jesslee

하:소연 좀 하자 친구야
정:말 어떻게 해야해
우:리 돌 지난 아들래 말이야
배:아파서 넣은 내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만
두:돌 될 때까지, 아니 세 돌까지도
나:한테만 붙어 엄마 껍딱지 하면 어찌지
오:늘 이 하소연을 들은 내 친구
달:래준다고 하는 말 '아~ 몇 달만 지나
봐라. 엄마는 개불.. 옆집 금발머리
여자친구 좋다고 쫓아다닐걸'
수:민아 고맙다..... 참 큰 위로가 되었다
.....

samuel.

히릴 없이 포기하고만 있었어요
정 보고 싶으면 불법 다운로드라도 해야
하나 했지요 ㅜㅜ
우리가 사는 보스톤에서 터널이 개봉한다
는 걸 알기 전까지만 해도요!!
배가 되는 기대감에
두근두근!
나의 도전이 빛을 발할 것인가?!!
오 마이 갓!
달콤살벌한 삼행시의 경쟁 속에서
수려한 저의 시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싸~ 터널 보러 간닷!!

Egggggy

하...오늘 하루가 기네요..

정말..긴긴 터널처럼..
우리 함께 끝이 희미하게 보이는 이 터널
을..
배가고프고..
두드러기가 나고..
나방들이 왕왕 거려도..
오늘이 마지막인것처럼..
달려요..
수백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촉박하지
않은 마음으로 뛰다 보면 끝이 보일거
예요 <3

Ctrychoi

하 정우,
정 말 많이
우 나요?
배 두나는
두 번정도
나오나요?
오 달수가
달 리다가
수 십번 넘어진다면요?

jdkim

하정우나오는 터널
정말
우리 부부의 워너비 영화
배두나로도 삼행시 지어야
두장 티켓
나오는거죠?
오달수가 마지막인데
달리 생각이 떠오르질 않네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나요

<터널> 8월 26일 보스톤 전격 개봉

▶▶1면에 이어서

동원하며 2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는 올 여름 대작 4편 중 유일한 기록이다. 또한 개봉 3일째

100만, 5일째 200만, 6일째 300만, 10일째 400만 관객을 돌파한 <터널>은 개봉 12일째인 21일(일) 오후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여전히 뜨거운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쟁쟁한 신작과 경쟁작들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터널>은 끝없는 호평과 입소문 열풍 속에 높은 좌석 점유율과 예매율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이 같은 기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hsb@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 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매사추세츠 독립영화제 한국작 <살레> 27일 상영

(서울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독립영화제(Massif)에 드물게 한국 독립영화 <살레>(chalet, 박소진 감독)가 출품해 올해의 관심작 중의 하나인 <넵툰>과 최우수작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박소진 감독의 독립영화 살레는 탈북 남성과 한국 여성이 방 하나를 두고 밤과 낮을 교대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쪽지로 서로 소통하다 가까워진다는 내용이다. 27일 토요일 하버드 스퀘어 소재 브레틀 극장(Brattle Theater)에서 오후 5시에 상영된다.

살레는 올해 4월 애리조나 독립영화제 초청작이었다. 이번 매사추세츠 독립영화제(Massif)에서는 감독상, 작품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각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우수작이다. 27일 상영회 때에는 박소진 감독과 주연배우 김호원씨가 직접 참석하여 관객과의 질의 응답시간을 진행한다.

2016년 매사추세츠 독립영화제에는 살레를 비롯해 35개 독립영화 단편, 장편 및 다큐멘터리 작품이 전세계에서 초청되어 경쟁한다. 2016 작품상에는 데쓰언어락(Death on a Rock), 넵툰(Neptune), 살레(Chalet), 아고니스앤 레미디스(Agonies and Remedies) 등 4편이 올라 있다. 올해는 살레를 비롯해 30년간의 은퇴에서 돌아온 이탈리아



가장 루이지 코씨의 <블러드엔 펠리스 문>, 데릭 킴벨의 <넵툰> 등의 작품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영화제는 보스톤의 영화비평가 피터 케오프를 중심으로한 심사위원

원진들이 수상작들을 선정한다. 수상은 마지막 날 8월 29일 일요일 오후 8시 JFK 스트리트에 있는 테이스티 버거(Tasty Burger)에서 열리게 된다.

hsb@bostonkorea.com

총영사관, 갤러리 전시회 오픈 행사 가져

한미예술협회와 공동 기획 김사울, 김태병 작가 작품 전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보스톤 총영사관은 8월 18일 오후 4시30분 주보스톤 총영사관 갤러리에서 제3차 전시회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 전시회는 민원 업무가 아니어도 업무시간 내 뉴튼 소재 총영사관을 방문해 감상이 가능하다.

"IMAGINATION" 을 주제로 보스톤미술관 대학을 졸업한 김사울, 김태병 작가의 작품 10여점이 전시된 이번 행사는 9월 30일까지 개최된다. 김사울 작가는 한국인으로서는 이국생활과 문화에 적응하면서

갖게 되는 새로운 느낌을 꿈의 형상으로 표현하였고, 김태병 작가는 이 민생활의 고단함을 건축물의 재조합을 통해 표현했다.

이번 행사는 총영사관과 한미예술협회가 공동으로 기획하였으며, 예술협회 회원 및 예술인 30여명이 참석하여 작가의 작품 설명을 들었다. 또한,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김수연씨가 플루트를 연주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주보스톤 총영사관은 8월 18일 오후 4시30분 주보스톤 총영사관 갤러리에서 제3차 전시회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

밀알장로교회 남선교회 주최 선교기금 모금 골프대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북서쪽 챔스포드 소재 밀알장로교회 남선교회는 9월 11일 일요일 오후 1시 헤버힐 소재 크리스탈레이크 골프코스에서 선교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골프대회 참가비는 1인당 \$100이며 부부인 경우 \$180, 골프장 회원인 경우 \$60이다. 비용에는 중식, 석식 및 골프 카트 비용이 포함된다. 시상은 챔피언, 장타상, 근접상 그리고 AB조 1,2,3 등으로 나눠 트로피와 부상을 수상한다.

문의는 함성기 남선교회장 (603-930-9276), 두현균 집사 (978-877-1598), 서태환 집사(978-314-1240), 황진호 집사(603-568-0794)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건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she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느헤미야 평신도 신학원 9월 학기 수강생 모집

(서울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인교회 연합으로 만들어진 뉴헤미야 평신도 신학원이 9월 10일 공개강좌와 더불어 정규 강좌를 개설하고 신규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가을에는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개설되는 센트럴 클래스와 보스톤 북쪽 레딩 소재 나사렛사람교회에서 개설되는 노스클래스에 각각 2강좌씩 4강좌가 개설된다.

월요일 저녁 센트럴 클래스에는 안창선 목사의 "고대 중동 문화로 읽는 신약"과 이영길, 유경렬 목사가 공동으로 가르치는 "이민신학 알아가기"가 개설된다. 화요일 저녁 진행되는 노스클래스에서는 김성천 목사의 "아가서에서 읽는 하나님의 사랑"과 조유연 목사의 "심리이론의 이해를 통한 관계 향상과 갈등의 대처" 강좌가 마련된다.

2년전 보스톤 지역 한인교회들의 연합으로 시작된 보스톤 느헤미야 평신도신학원(BNI)은 그 동안 네 번의 학기와 16 과목의 개설을 통해 탁월한 강사진과 균형 잡힌 신학교육을 제공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섯 명의 강사진들은 모두 한인교회 담임목사, 박사과정에 있는 신학자,



2016년 가을학기 교과과정

요일 및 시간	학사일정	장소	과목명	교수
일요일 7:30-10pm	9/12-10/17	Central	고대 중동 문화로 읽는 신약	안창선 목사
	10/24-11/21	Central	이민신학 알아가기	이영길/유경렬 목사
화요일 7:30-10pm	9/13-10/11	North	아가서에서 읽는 하나님의 사랑	김성천 목사
	10/17-11/14	North	심리이론의 이해를 통한 관계 향상과 갈등의 대처	조유연 목사

신학대학원 강사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9월 12일부터 한 과목 5주, 모두 10 주동안 진행되는 이번 가을학기에 대한 수강신청은 www.bosni.org에서 할 수 있으며, 우편 등록 또는 수업 첫 날 강의 장소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9월 10일 토요일 오후 6시 45분에는 보스톤한인교회에서 BNI 평신도신학원 공개강좌가 진행된다. 매릴랜드 대학 경영학과의 서명구 교수가 "Business As Mission"이란 주제로 비즈니스 환경속에서 어떻게 교회와 성도가 선교적 부르심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 강의한다. 관련 문의는 김건철 사무총장(347-551-4152)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콩코드 경찰서장은 "약 4분의 1마일 가량의 나무와 전신주가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토네이도 보스톤 인근 콩코드 강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벽 기자 = 작은 아씨들, 월든 호수 등으로 잘 알려진 타운 콩코드에 비교적 작은 EF-1 규모의 토네이도가 22일 강타했다고 미 기상청이 밝혔다.

22일 새벽 3시에서 4시 게 지속 10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약 400야드(365미터) 폭에 0.5마일(800미터)가량의 통로를 강타했다. 토네이도의 단계는 EF-0에서 5단계로 나뉜다. EF-1 토네이도는 지속 86-110마일정도의 강풍을 동반한 토네이도 급을 말하며 지붕이나 유리창을 파손하는 정도다.

콩코드 소방서장에 따르면 이번 토네이도로 인해 사상자는 발생치 않았다. 마크 콘트라우 소방서장은 "39개의 주택이 일부 손상을 입었으며 다행히 1개의 가옥만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부상자는 없지만

많은 청소거리가 남았다"고 밝혔다.

이외에 상당수의 나무가 쓰러졌으며 전신주가 쓰러졌다. 콩코드 경찰서장은 "약 4분의 1마일 가량의 나무와 전신주가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주요 손상지역은 렉싱턴 로드와 인디펜던스 레인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콩코드 지역 전력공사는 전기를 다시 공급하기 위해 작업중이다.

한편, 말보로 지역도 일부 토네이도 손상을 입었지만 일부 가로수와 전선만 피해를 입었으며 가옥 손상 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사추세츠에 토네이도가 강타하는 것은 지난해 6월 웨스트미니스터였다. 2014년에 리비아에는 규모 2의 토네이도가 강타하기도 했다.

hsb@bostonkorea.com

탈북자 및 해외 구호 바자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보스톤 교회는 9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스톤햄소재 교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큰나눔 바자회"를 한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의류, 장난감, 전자제품, 가구, 생활용품, 부엌용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한다. 또한 유기농 건강식 재료들과 유기농 천연 화장품, 비누도 판매한다

이 교회 송연호 목사는 "오셔서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얻으시고 즐거운 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수익금 은 전액 북한 탈북자(새터민)들과 해

외구호를 위해 사용된다"고 밝혔다.

장소: Boston Korean Adventist Church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날짜: 9월18일 (일요일) 11-4pm
bostonkorean@hotmail.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딜러 스코피디오+렌프로(Diller Scofidio + Renfro)가 디자인한 ICA 미술관 외관

ICA 미술관, 지난 10년간의 컬렉션 전시

(서울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하버 워터프론트에 위치한 ICA 미술관이 대규모 컬렉션 전시를 연다. 2006년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은 이후 수집한 미술관 컬렉션을 기념하는 전시로, 지난 10년 동안 수집한 예술품은 총 250점에 달한다. ICA 미술관은 80년 전에 개관하여 10년 전 현재 위치로 이전하기까지 열두 번 이상의 개명과 이전을 거쳐 왔다.

ICA의 250점의 컬렉션 중 100점에 달하는 작품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는 컬렉션 전으로는 최대 규모로 진행된 다. 이 중 50점은 ICA에서 최초로 전시 되는 것이다. 앤디 워홀을 비롯하여 20 세기와 21세기를 풍미한 영향력 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대거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가령 폴 찬(Paul Chan), 카라 워커(Kara Walker), 코넬리아 파커(Cornelia Parker), 엘렌 갈라거(Ellen Gallagher)의 작품이 전시된다.

‘첫 번째 빛: 10년간의 ICA 컬렉션 (First Light: A Decade of Collecting at the ICA)’이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소주제로 구분되어 있다. 페미니즘, 가정, 일대기, 전유 등의 소주제로, 각각 독립된 전시로도 관람이 가능하다. 이중 3가지의 주제의 전시는 전시 기간 중반부에 새로운 주제의 전시로 교체될 예정이다. 이는 더 많은 컬렉션을 소개함은 물론이고, 각기 다른 소주제와의 새로운 병치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 위함이다.

반면에 전시기간 내내 만나볼 수 있는 작품도 있다. 폴 찬의 디지털 애니메이션 작품 ‘첫 번째 빛(1st Light)’이 그중 하나로, ICA의 최초 수집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전시 제목에 영감을 준 작품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바바라 리의 여성작가 작품 컬렉션과 소주제전 중 소프트 파워전 또한 마지막 날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다양한

주제의 전시는 큐레이터들과 컬렉터들의 시각과 현대미술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물질적, 미학적인 고민들을 반영한다. 또한 지난 수년간의 ICA 미술관 전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ICA의 디렉터 질 메드베도우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전했다.

전시 오프닝과 더불어 ICA 미술관은 독립적 홈페이지인 마이크로사이트(icaboston.org/firstlight)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예술작품과 가상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작가들의 인터뷰, 작품 설명, 큐레이터 코멘트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빛: 10년간의 ICA 컬렉션 (First Light: A Decade of Collecting at the ICA)’전은 지난 8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열린다.

주소: 25 Harbor Shore Dr., Boston,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Boston

sun@bostonkorea.com

헤리티지 재단, 메인 주가 가난한 이유 지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보수 싱크탱크인 메인 헤리티지 정책 센터(Maine Heritage Policy Center)가 메인 주의 소득 불균형을 가져오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과도한 정부 규제와 복지시스템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6월 통계전문가 리암 시거드(Liam Sigaud)에 의해 발표된 리포트 “메인 주를 가난하게 만드는 10가지 것들”은 메인 주가 왜 미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주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주요 요인들을 보수적인 시선에서 정리하고 있다.

시거드는 뉴보스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른 뉴잉글랜드 지역의 주와 비교해서 메인 주는 주민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높은 세금뿐만 아니라 비싼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한다. 택아 비용과 자동차 소유비용이 너무 높다”고 밝혔다.

재단 조사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메인 주 주민의 12.3%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에서 22번째로, 가장 부유한 주로 조사된 뉴햄프셔의 경우 7%만이 빈곤선 이하다. 메인 주의 생활비용은 미국내 12번째로, 한 가족당 한 달 생활비가 \$2,372-\$6,90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전체 평균보다 6%가량 높은 수치이다.

헤리티지 재단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인 주의 에너지 비용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뉴잉글랜드의 혹독한 겨울 추위로 인한 난방비로 인한 것이지만, 메인 주의 복잡한 규제 체제가 높은 가격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 메인 주의 절반 이상이 자신들의 소득의 30%이상을 집값을 유지하는데 지출하고 있다. 이는 렌탈 규제 정책으로 인한 공급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제 법규로 인해 집 건축 비용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 메인 주의 연간 데이케어 비용은 메인 주의 공립대학 일 년 치 학비에 맞먹는다. 편부모 가정의 경우 급료의 73%를, 빈곤선 아래에 있는 양부모 가정의 경우 급료의 68%를 차일드 탁아 비용에 지출한다. 이 조사는 또한 값비싼 데이케어 비용의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를 꼽고 있는데, 그 규제가 운영비용의 인상을 가져오면서 많은 탁아소가 문을 닫게 되어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 메인 주의 자동차 소유비용은 엄격한 검열과 등록 절차로 인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메인 주의 시골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출퇴근을 위해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sun@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희망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완화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완화
- ③ 비염, 천식, 알레르기, 만성 스트레스 완화
- ④ 만성 관절염, 비만, 근육통
- ⑤ 소화장애, 변비, 대장염, 대장출혈
- ⑥ 골관절염, 관절염, 만성 허리 통증
- ⑦ 만성 피로, 만성 스트레스, 만성 불안
- ⑧ 만성 두통, 만성 두통, 만성 두통
- ⑨ 만성 두통, 만성 두통, 만성 두통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에 듭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8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시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SAT II 점수 없어도 갈 수 있는 대학 늘어난다

저소득층과 소수 인종에 불리한 시험 비판
2012년부터 응시 학생 수 급격하게 감소세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명문 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점점 더 많은 대학들이 SAT 과목별 시험(SAT subject tests, 이하 SAT II) 점수를 대학 지원시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크스트 칼리지, 다트머스 칼리지, 윌리엄스 칼리지 등의 최고 명문 대학들이 이미 지난해부터 SAT II를 대입 지원시 필수 사항에서 제외시켰다. 컬럼비아 대학은 올해 봄에 SAT II를 필수 요건에서 제외 시킨다는 입시 요강 변경을 발표했다.

SAT II 시험은 1시간 동안 치러지며 모든 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SAT 시험이 영어와 수학 과목만을 평가하는데 반해, SAT II는 수학, 역사, 화학, 제2외국어 등 20개 과목 중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볼 수 있다.

그러나 SAT II도 SAT와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학 수준의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

는 척도로 활용되기 어렵고,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과 소수인종 학생들에게는 불리한 시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SAT II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시험 날짜를 등록할 때 26달러를 내야 하고, 추가로 과목당 20달러를 내야 한다. 그리고 시험 점수를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보낼 때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윌리엄스 칼리지의 메리 데트로프

대변인은 "우리는 가능한 모든 학생들의 입학 사정 과정을 공정하게 처리 하길 원한다"며 "우리는 SAT II 점수에서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는데) 도움이 될만한 가치 있는 정보를 얻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SAT II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SAT II에 응시하는 학생 수는 지난 10년 사이 14%가 감소하였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이 SAT II를 필수 입시 요강에서 제외한 2012년도부터 급격히 응시생 수가 줄었다.

하버드와 MIT를 비롯한 일부 명문 대학들은 여전히 SAT II 점수를 입학 지원시 필수 사항으로 정해 놓고 있다.

jsi@bostonkorea.com



리버럴 아츠 칼리지 중에서 미국 랭킹 1위(2016년 기준)인 윌리엄스 칼리지는 SAT II 시험 점수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전 팩스 뉴스 진행자 안드레아 탄타로스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팩스 뉴스 경영진과 스캇 브라운 전 상원의원을 고소했다

스캇 브라운 전 상원의원 성추행 의혹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팩스 뉴스를 진행했던 안드레아 탄타로스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타로스가 제기한 소송의 대상에는 스캇 브라운 전 상원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뉴욕 주 대법원에 접수된 소장에서 탄타로스는 팩스 뉴스 재직 당시 최고 경영진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는 브라운 전 의원 역시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적혀 있다.

탄타로스는 "팩스 뉴스는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플레이보이 하우스 같이 성적으로 잘못된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에 따르면 브라운 전 의원은 2015년 8월, 탄타로스가 진행하는 뉴스쇼에 출연할 당시 "너와 나이트 클럽에 가면 재미있을 거야"와 같은 말을 했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탄타로스의 뒤에서 몰래 다가와 허리 아래 쪽을 대기도 했다.

브라운 전 의원은 탄타로스의 소송과 관련하여 "완전히 거짓된 주장"이라며 "난 탄타로스와 일체의 신체 접촉도 없었고 팩스 뉴스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전문 직업인으로 대했다. 나는 나이트 클럽에 가지 않고, 지난 30년간 나이트클럽에 가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저가오농 북, 서울설렁탕의 미전, 국밥, 보쌈, 두육과 함께 각종 두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BeatsBeatsSoup.com

서울 or Dragon Hill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8
SackiFood@saturn.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공, 리얼터

주택.콘도.사업체.건물.투자

617.290.0623 | Sson@ownnewengland.com
Son2323@gmail.com

"HOT" 비즈니스 매물 정보!

RT.128 & I-95 안쪽에
모든 장비 갖춘 세탁소:
부부 운영 Net \$100K이상 \$159K(강추)

Waltham 물안의 픽업 스토어:
많은 확대 가능성!
신규 또는 확장에 적격 \$149K(필견)

보스톤 지역 바이오메디컬 연구 단지, 신규 부동산 투자지로 부상

외국인 투자자들 주목

삼성 SRA 자산운용 주식회사 등 한국 투자자도 눈에 띄어
케임브리지의 공실률은 3.4%에 불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보스톤 소재 상업빌딩과 고급 주택 빌딩을 사들이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새로운 부동산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보스톤 지역의 제약 산업 붐에 따라 제약연구단지 부동산이 투자 공간으로 떠오른 것이다.

몇 달 전, 유럽과 아시아, 중동의 거대자금과 부유한 개인들이 케임브리지에 있는 켄달 스퀘어나 보스톤 롱우드 메디컬 지역과 같은 바이오메디컬 연구 단지에 처음으로 입찰했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부동산 기업들을 관리 감독하는 JLL 캐피탈 마켓의 상무이사인 프랭크 펫츠(Frank Petz)는 지난 22일 보스톤 글로브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외의 자본들이 연구소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이는 자산으로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보스톤은 안전한 투자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투자의 다변화를 영국의 브렉시트에 따른 영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영국과 다른 유럽으로 향하던 해외 투자자들의 자본이 대서양을 건너왔다는 것이다. 바다를 건너온 해외 투자자들은 또한 미국의 부동산 기업들의 공동기금에도 참여하고 있다.

작년 한해 4백6십억 불에 달하는 상업지역의 부동산 매입 중 거의 절반이 해외 투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중 바이오메디컬 관련 부동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스톤 지역에

기반을 둔 로컬 투자자들, 가령 알렉산드리아 부동산 에퀴티나 바이오메드 리얼티, MIT 등에 의한 매입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과거의 경우, 바이오메디컬 부동산은 위험요소가 많다고 알려져 해외 투자자들은 관련 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신규로 창업한 스타트업 바이오메디컬 회사들은 빠르게 성장하며 확장해가기도 하지만 벤처자본에 따라 소멸하기도 하고 수십 년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달 아시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바이오메디컬 연구단지 조사를 개최한 뉴마크 그룹 나이트 프랭크(Newmark Grubb Knight Frank)의 자본시장 미국 총괄 롭 그리핀(Rob Griffin)은 해외투자자들은 그동안 "도심의 오피스 건물을 매입하고자 했고, 제약회사나 의학 관련 부동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기준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급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오메디컬 연구단지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불러온 원인 중의 하나는 아리아드 제약주식회사(Ariad Pharmaceutical Inc.)가 자신들이 임대한 회사의 여유 공간을 다시 다른 바이오회사에게 서블렛한 일이다. 지난 2년간 아리아드는 케임브리지의 켄달 스퀘어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 헤드쿼터의 일부분과 비니 스트리트의 연구 캠퍼스를 서블렛으로 내렸고, 이 공간에

IBM 왓슨 헬스와 다른 세입자들이 들어왔다. 이는 케임브리지 연구공간에 대한 절대적 수요를 역설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제까지 해외 투자자가 성공적으로 매입한 제약회사 건물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투자는 주로 독일 소유 회사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 중 하나인 도이체 뱅크(Deutsche Bank)는 작년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 인근에 위치한 50 Staniford St.의 한 건물을 1억2천3백만 불을 주고 매입했다.

뉴버리 스트리트의 부티크들을 소유한 제임스타운 LP(Jamestown LP)는 독일의 부유한 개인들로부터 투자자금을 지원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씨포트에 위치한 보스톤 디자인 센터를 2013년 7천2백7십만 불을 주고 매입했다. 이는 군사창고를 사무실과 연구소로 새롭게 개조한 것이다.

이 회사는 같은 해 켄달 스퀘어의 245 First St.에 있는 제약회사 건물을 1억9천3백만 불을 주고 매입했다. 3년이 지난 지금, 3억불이 넘는 금액에 노르웨이의 투자 회사인 노지스뱅크 소버린 웰스 펀드(Norges Bank sovereign wealth fund)에 되팔려 하고 있다.

노지스는 또한 올해 초 켄달 스퀘어의 8에이커 규모의 바이오메디컬 건물들을 사들이려고 했으나, 이는 7억2천5백만 불에 알렉산드리아에 팔렸

다. 부동산 인사이드들에 따르면 보스톤 지역의 바이오메디컬 부동산을 주목하고 있는 다른 해외 투자자들로는 중국자본의 에버그랜드 그룹(Evergrande Group), 두바이 기반의 사파나드 Ltd.(Safanad Ltd.), 한국 복합기업 중 하나인 삼성 SRA 자산운용 주식회사(Samsung SRA Asset Management Co.) 등이 있다.

이같이 바이오메디컬 연구 단지가

투자대상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 보스톤 지역 바이오산업이 탄탄하게 발전했기 때문이다. 지난 주 부동산 중개회사 트랜스웨스턴(Transwestern)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케임브리지의 연구소 공실률은 3.4%, 보스톤의 연구소 공실률은 3.7%에 불과하다.

sun@bostonkorea.com



바이오메디컬 연구소 밀집 지역인 케임브리지 켄달 스퀘어



IBM 왓슨 헬스를 비롯한 다른 제약회사들이 서블렛으로 임대한 켄달 스퀘어 비니스트리트의 건물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gchoi@ownnewengland.com, pju@ownnewengland.com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민주당, 상원 '탈환' 가능성 60%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승리가 예견되는 가운데 상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60%란 분석이 나왔다. 미국 상하원 총선은 대선과 함께 11월 8일 동시에 치러진다.

현재 공화당이 54석, 민주당이 46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5석만 가져오면 3년 만에 다시 다수당이 된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에 선출될 경우 다수당을 위해 필요한 의석은 4석으로 줄어든다. 그의 러닝메이트인 팀 케인이 부통령으로 자동 상원의장을 겸직하기 때문이다.

24일 뉴욕타임스는 선거분석기관 업샷의 분석을 근거로 이 같은 확률은 60%에 이른다고 밝혔다. 클린턴의 대통령 선거 승리 가능성이 89%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 비해 월등한 점까지 감안한 것이다.

이번 상원 선거에서 교체되는 의석

은 총 34석이다. 이중 공화당이 장악한 곳은 24개 주, 민주당은 10개 주다. NYT/업샷은 각종 상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주당은 기존 10개 의석 대부분을 무리없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에 대한 악화된 민심 영향으로 기존 의석을 잃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0년 공

화당이 크게 선전하면서 의석을 확보한 경합주 위스콘신·일리노이·인디애나·펜실베이니아 등은 올해 민주당으로 넘어갈 위기에 놓였다.

애리조나는 공화당 '주류' 존 매케인이 연임에 도전하나 민주당의 앤 커크패트릭 후보와 계속해서 지지율 접전이 벌어지며 의석을 빼앗길 가능성도 높다.

yjw@news1.kr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NYT, 클린턴 승리 가능성 89%...선거인단 347명 확보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잇따른 약재에도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89%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24일 뉴욕타임스는 선거분석기관 업샷의 분석을 근거로 이 같이 밝히며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클린턴이 지게 될 확률은 "미식축구 리그(NFL) 선수가 20야드(18m) 필드골에 실패하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최근 제기된 '클린턴 재단' 부패 문제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메일 스캔들도 클린턴이 우세를 점한 대선 판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샷은 각 주별 과거 선거 동향 및 가장 최근에 진행된 각종 전국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매월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대표 경합주 10곳 가운데 클린턴은 4개 주(조지아, 애리조나, 미주리,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하고 6개 경합주에서 59~92% 확률로 트럼프를

이길 것으로 예상된다.

NYT/업샷은 538, 퓨리서치, PEC 등 여러 전국 여론조사를 비교해 클린턴의 예상 선거인단을 추산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르면 클린턴은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크게 웃도는 347명을 확보할 전망이다.

지난 6월 클린턴과 트럼프는 대선 승리 가능성이 각각 60%, 40%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점점 벌어져 8월말께 89%대 11%로 클린턴의 승리 가능성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yjw@news1.kr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클린턴 "연기 많아도 불은 안나"... 재단 관련 의혹 부인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클린턴재단 부패 의혹에 휩싸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클린턴은 24일 CNN방송 앤더슨 쿠퍼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제기한 의혹은 모두 터무니없는 것으로, 국무장관 재임 시절 내 업무는 어떤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바에 근거해 정책 결정을 내렸다"고 변호했다.

클린턴은 "연기가 많이 나고 있다는 점을 안다. 그러나 불은 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는 최근 클린턴 재단에 대한 부패 의혹을 들추며 공세를 강화해나갔다.

트럼프는 전날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진행된 선거유세에서 "미 국무장관이 매수되거나 뇌물을 받았을 수도 있다니 정말 당혹스럽다"며 "이건 제3세계에서나 벌어질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AP통신은 클린턴이 국무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사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나눈 외부인사 15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5명은 클린턴 재단 기부자거나 국제후원 프로그램 기부를 약속한 인물이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클린턴과 재단 기부자 간 사적 만남이 법률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찾은 만남은 재단 기부금이 클린턴과 얼굴을 마주하는 입장권이라는 의혹을 더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클린턴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비젤이나 무함마드 유누스, 멜린다 게이즈 등과 만난 것은 이들이 재단과 관계대있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였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클린턴은 "터무니없는 의혹이다. 나는 이들과의 만남이 자랑스러우며 국무장관이라면 누구나 이들이 이런 업적과 통찰력을 듣는데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yeoulim@news1.kr

SAPPORO
JAPANESE ASIAN RESTAURANT
뉴 사っぽ로 레스토랑
한식·일식·중식
617.964.8044
81 Union Street, Newton Center, MA 02459

HAPPY
해피돌상
고급의 전통상차 대접
1. 전통 떡볶이
2. 전통 떡갈비
3. 전통 떡국
문의 617.248.3131 Happydol@com

RE/MAX
Eileen Park (마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책 | 콘도 | 커머셜
점심점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애플 '팀 쿡' 체제 5년... 스티브 잡스보다 잘한 5가지 업적

(서울=뉴스1) 황윤정 기자 =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어 팀 쿡이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5년이 흘렀다. 지난 5년 간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석유기업 엑손모빌을 추월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쿡 CEO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다소 박하다. 성장을 이뤘지만 혁신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시장의 생태계가 변화하고 신흥국시장에서 경쟁업체들의 도전에 거세져 앞으로 5년이 쿡 CEO에게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24일 마켓워치는 애플의 지난 5년을 돌아보며 쿡 CEO가 잡스보다 잘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주주 친화 정책 ▲펜 입력기기 재도입 ▲통신업체들과의 계약 ▲음악 및 서비스 제국 구축 ▲사회 투자 등이 포함됐다.

◇ 주주 친화 정책

스티브 잡스 전임 CEO는 주주 환원 정책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쿡이 CEO에 오른 뒤 2012년부터 애플은 1270억달러에 달하는 자사주매입에 나섰다. 또한 448억달러를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애플이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한데는 칼 아이칸 등 이른바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입김이 한몫했다. 지난 2013년 아이칸이 애플의 주식을 20억달러 매입하자 애플도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초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에 대한 우려감으로 애플의 주식을 모두 매각한 뒤에도 아이칸은 “쿡

CEO는 매우 잘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잊지 않았다.

◇ 펜 입력기기 출시 및 '약정 프로그램' 도입

쿡 CEO는 지난해 대화면의 아이패드 프로를 출시하면서 스타일러스펜인 애플 펜슬을 공개했다. 이때까지 디지털 펜은 잡스의 실패작으로 꼽히던 제품이었다. 그러나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은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시너지를 일으켰다.

지난해 애플은 중간 판매인을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아이폰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매월 할부금을 내면 1년에 한 번씩 기존 제품을 새 아이폰으로 바꿔주는 약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소비자들 사이 2년 동안 아이폰 사용 계약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로 인해 애플은 통신사들과 큰 갈등을 빚었다. 애플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통신사들이 고객 통제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애플 제품의 업그레이드 주기를 단

축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 '서비스 제국' 만든 쿡...사회적 책임 실천은 '덤'

지난번 실적 발표 자리에서 쿡 CEO는 애플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고 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6월로 끝난 회계연도 3분기 애플의 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앱스토어 판매가 37% 신장됐다.

쿡 CEO는 애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동성애자의 인권이나 노동력 다변화를 위해 애플은 많은 사회적 투자를 단행했다. 지난 2014년 커밍아웃한 쿡 CEO는 미국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 중에서 동성애자라고 밝힌 유일한 인물이었다. 이후 소외된 동성애자 아이들을 돕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켓워치는 “애플이 다른 실리콘 밸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요구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yung@news1.kr



애플 CEO 팀 쿡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가 22일 첫 자생적 지카바이러스 발병지역인 원우드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다

플로리다 지카 확산 조짐... 새로운 지역서 환자 추가 발생

첫 발생 지역서 480km 떨어져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미국 내 첫 자생적 지카바이러스 발병지역인 플로리다 주에서 지카바이러스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FP통신 등은 23일 자생적 지카바이러스 감염 발생 지역인 마이애미 북부에서 서북쪽으로 480km 떨어진 탬파 시 피넬라스 카운티에서 지카 발생지를 다녀온 여행객이 지카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날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5명 추가로 발생했고, 이 중 1명은 마이애미에서 떨어진 탬파 지역 주민”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플로리다 주에서 여행 경험 없이 자생적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총 42명으로 늘었다.

스콧 주지사는 “피넬라스 카운티에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고 단정지을 순 없다”며 “플로리다 보건당국은 해당 환자가 피넬라스 카운티에서 감염됐는지, 혹은 인근 지역에서 감염됐는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건 당국은 현재까지 원우드 지역과 마이애미 해변가에만 자생적 지카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마이애미에서는 유명 관광지인 원우드구역 시내 북부에서 첫 지카 감염자가 발생한 데 이어 마이애미 해변 일대에서도 지카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주 임신부에 원우드 지역과 마이애미 해변가에 가지 말 것을 권고했다.

yjy@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우병우 · 이석수 특수팀 수사 착수...의혹 어디까지 밝힐까

특감 수사 의뢰 건 외 다른 의혹도 수사할지 관심
이석수 특감도 소환 조사 가능성... "부르면 가겠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사법연수원 19기) 수사 의뢰 사건과 이석수 특별감찰관(53·18기) 감찰 내용 유출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특별수사팀이 24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청와대의 압력과 여론의 압박 속에 출발한 특별수사팀이 의혹을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팀 구성을 끝내고 이날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특별수사팀이 규명해야 할 의혹은 △우 수석 직권남용·횡령 사건과 △이 특별감찰관 감찰 내용 유출 사건 등 크게 두 갈래다.

특별수사팀은 우선 의경인 우 수석 아들의 이른바 '꽃보직 전출' 논란과 우 수석 아내 명의의 가족기업 ㈜정강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

수한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 수석 아들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아내 의혹에 대해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해 대검찰청에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 우모 상경(24)은 같은 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았다. 그러나 자대 배치 두달 만 뒤인 7월3일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우 상경의 전출은 기존 이상철 차장 운전병의 제대(8월13일)를 앞두고 이뤄졌다. 그런데 이는 부대 전입 4개월 뒤부터 전보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우 수석의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일었다.

또 우 수석과 아내, 자녀가 지분을 100% 소유한 ㈜정강은 직원과 사무실이 따로 없었으나 지난해에만 접대비(1000만원), 차량유지비(781만원), 통신비(335만원), 복리후생비(292만원) 등 1억원 이상을 사용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측이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이 경찰의 수사 비협조로 감찰이 쉽지 않다는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는 만큼 검찰 수사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경찰 관계자 6명 중 우 상경만은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특별감찰관과는 달리 강제수사권이 있어 관계자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구인장 등을 통해 강제로 수사할 수도 있다. 또 관계자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제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문제는 이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나머지 의혹들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넥슨의 처가 강남역 부동산 매매 △진경준 전 검사장 인사 검증 소홀 △처가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특별감찰 범위에서 제외했다.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별감찰관법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특별감찰관과 달리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기 이전의 의혹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우

수석 관련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인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이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16일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MBC를 통해 제기되면서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은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으로 번졌다.

이후 극우단체인 대한민국수호전주교모임은 지난 18일 이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으로 하여금 감찰 개시, 감찰 착수·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유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 특별감찰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출 상대방인 언론사 관계자들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검찰에서 부르면 제가 나가서 답변하겠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협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abilitykl@news1.kr



검찰이 우병우·이석수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24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Kahn Bae (배 경은)



617-981-1542

Didi Goo (구 효희)



508-641-8924



LEXINGTON

...\$ 2,985,000



WAYLAND

...\$ 1,825,000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AUG. 26 - SEP. 1, 2016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KOREAN GRANOLA BARS

맛도 듬뿍, 영양도 듬뿍!
H마트와 함께 만드는 영양만점 그래놀라바!

Yes, the recipe for the perfect energy bar is here. Treat your body or give the gift of fast energy.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Hmart.com에서 다양한 백투스쿨 상품을 만나보세요!



FRIDAY/SATURDAY ONLY 26 / 27 / 28 ONLY 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36 size \$4.99	FRIDAY/SATURDAY ONLY 26 / 27 / 28 ONLY Niabell Grape 니아벨 포도 반박스 Half box \$14.99	FRIDAY/SATURDAY ONLY 26 / 27 / 28 ONLY ZESPRI Sun Gold Kiwi 제스프리 선골드 키위 box \$19.99	White Nectarine 백천도 \$1.79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0.88
Ginger 생강 \$0.88	White Peach 백도 \$1.79	Nagaimo 일본 미 \$3.99	Kabocha 단호박 \$0.88	수녀원 콩두부 SOONYEOWON Tofu Soft/Firm/Silken/14 - 16oz \$0.99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U.S.D.A. CHOICE Beef Top Blade Steak 부채살 (박집살 스테이크) \$6.99	FRESH Sliced Pork CT Butt Steak 소금구이용 돼지 생육살 \$4.99
Pork Baby Back Rib (Whole Piece) 돼지 등갈비 \$4.99	Sliced Beef Rib Eye for Bulgogi 냉동 소불고기 \$6.99
Boneless Chicken Breast 뼈없는 닭가슴살 \$2.49	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돼지 삼겹살 \$5.99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IDAY/SATURDAY ONLY 26 / 27 / 28 ONLY Head-on White Shrimp 머리있는 흰새우 32-40's \$5.99	FRIDAY/SATURDAY ONLY 26 / 27 / 28 ONLY Whiting 생선 \$1.99
FRIDAY/SATURDAY ONLY 26 / 27 / 28 ONLY Salted Mackerel 짭뽕 고등어 \$3.99	FRIDAY/SATURDAY ONLY 26 / 27 / 28 ONLY Abalone 냉동 전복 \$19.99
FRIDAY/SATURDAY ONLY 26 / 27 / 28 ONLY WEST BAY Squid Rings 웨스트 베이 오징어링 1 lb / pkg \$2.99	FRIDAY/SATURDAY ONLY 26 / 27 / 28 ONLY GLOBAL Unagi Kabayaki 글로벌 무너기 10oz / pkg \$4.99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s \$9.99	NISHI MOTO Sekka Premium Medium Grain Rice 니시모토 세카 쌀 15 lbs \$9.99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1.75 - 2 lbs \$14.99	CJ Bibo Classic Dumpling/Crispy Potstickers CJ 비비고 왕만두/고깃만두 1.75 - 2 lbs \$6.99

HELLO HOME Back to SCHOOL

Biggest Sale Ever!

빅 세일 이벤트

NEW COOKWARE TABLEWARE AND MORE!

백투스쿨 세일상품이 가득한 헬로홈 카탈로그가 H마트 매장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UNTIL SEP. 5TH, 2016 AT ALL HMART MA STORES

PULMONE Cold Noodle Pulmone 냉면 11.88oz x 1 bag \$3.99	BEKSUL Soybean Seasoning Mix 벅설 대두 부어 4.53oz 283	PENGUIN Canned Baked Mackerel Pike 펭귄 참치 14.1oz \$1.99	CHORPOONG Tteobokki with Sauce 초밥동아 향미면도 떡볶이 Original Sauce 1.27 lbs \$3.99	S&B Golden Curry S&B 골드커리 All Varieties 8.46oz \$2.99
CHINA Cold Noodle Bowl 차이나 냉면 11.88oz x 1 bag \$3.99	KOTAWA Melon Sweet Melon Cream Cracker Kotawa 멜론 5.64oz \$0.99	CROWN Choco/White Ham 크라운 초코/백색 햄 16oz \$3.99	HAITAI Nougat Ice Bar 하이타이 누가바 2.1oz x 10 bars \$3.99	BINGBANG Banana Flavored Milk Drink 빙방방 바나나 맛 우유 8.91oz x 12 cans \$5.99
SANGARIA Ramune Drink Sangaria 라무네 All Flavors - 230ml x 6 cans \$5.99	SANPELLERINO Sparkling Juice 산펠레리노 스파클링 주스 All Flavors - 230ml x 6 cans \$3.99	ALZIP Mat / Grand Size 알지프 매트 / 그랜드 사이즈 80x120 x 140 x 4cm - 80 \$129.99	ALZIP Mat / Ultra Grand Size 알지프 매트 / 울트라 그랜드 사이즈 80x120 x 140 x 4cm - 80 \$199.99	Stainless Steel Bowl 스테인리스 냉면그릇 21cm \$3.99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mistakes/typo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마트 매장은 신용카드를 모두 받습니다. H마트 Burlington Store: 42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70 / STORE HOURS: Sun - Thu: 10am - 9pm / Fri - Sat: 10am - 10pm

'우병우 · 이석수' 정면돌파 카드 내민 檢...성공여부 미지수

수사팀장, 우병우 연수원 동기... '정윤희 문건' 지휘도
김수남 총장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

(서울=뉴스1) 김수완, 성도현, 구교운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사법연수원 19기) 고발 이후 6일간의 고심 끝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내놓은 카드는 '특별수사팀'이었다.

청와대의 압력과 관련 여론을 모두 의식한 선택으로 풀이되지만 특별수사팀마저 성과 없이 수사를 종결할 경우 검찰은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23일 우 수석 직권남용 및 횡령 사건과 이석수 특별감찰관(53·18기) 감찰내용 유출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특별수사팀에 맡기기로 했다. 또 팀장으로는 '특수통' 윤갑근 대구고검장(52·19기)을 지명해 사법연수원 한 기수 선배인 이 특별감찰관과 연수원 동기인 우 수석을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고심 끝에 특별수사팀 카드를 꺼내든 것은 청와대의 압력과 여론의 압박을 모두 고려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의혹을 '국기문란'으로 규정,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우

수석에 대한 사퇴여론이 거세짐에도 불구하고 그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반면 야당 측은 연일 우 수석 사퇴 공세를 펼치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가 검찰에 앞서 접수된 우 수석 관련 고소·고발사건을 이미 맡고 있었던 데다가, 이 특별감찰관 고발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있었던 만큼 이 사건을 검찰총장 직속 사건으로 처리할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처리할지 여부에 대한 고심도 깊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윤 고검장을 팀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가 검찰 내에서 특별수사와 강력범죄수사 능력을 두루 갖춘 '특수통'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윤 고검장은 2011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근무할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BBK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이른바 '가짜편지' 사건,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

또 2015년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냈

당시에는 '성완중 리스트'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으며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도 맡는 등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을 많이 맡았다.

특히 2014년 대검 강력부장을 하면서 반부패부장을 겸임할 당시에는 우 수석이 기획·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정윤희 문건' 사건을 지휘해 수사 공정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대로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오히려 검찰이 여론의 역풍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 고검장과 우 수석은 1990년 연수원을 19기로 함께 수료한 연수원 동기 친분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윤 고검장은 2006년 법무부 보호과장, 우 수석은 2005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으로 1년간 함께 법무부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2008년 무렵 나란히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윤 고검장은 특수2부 부장검사, 우 수석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3차장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밖에 윤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우 수석이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할 2009년 무렵에는 두 사

람의 친분 관계로 수사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윤 고검장은 이 특별감찰관과 1993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윤 고검장은 우 수석과 라인이 형성돼 있어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든다"며 "지난 연말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우 수석이 모든 곳을 간섭했고 윤 고검장이 수사팀의 수장이 된 것은 (검찰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학연·지연을 따지면 (수사를) 할 사람이 없다, 검찰의 인적 구성을 보면 대부분 모

대학 출신이 70~80%이고 특수인력이 얼마 안 되는데 10년, 20년 근무하면 어떤 형태든 같이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총장님께서 공정한 수사 방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 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윤 고검장은 "수사 보고 절차에 있어서도 오해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취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고검장은 24일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해 우 수석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abilitykl@news1.kr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우병우 수석 처가 소유농지 2곳 중 1곳 '농지법 위반'

처가 땅 차명 보유 의혹 이모씨에 보낸 통지문 '수취불능'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가 소유한 농지 2곳 가운데 1곳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우 수석 처가 소유의 농지 2필지 중 1필지가 '휴경농지'로 확인돼 농지처분의무부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우 수석 처가가 소유한 동탄면 중리 292(2241㎡)·293(2688㎡)번지 2개 필지에 대한 청문을 시행했다.

청문 당일 우 수석 처가 측은 참석하지 않고, 자경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 수석 처가 측은 의견서에서 292번지는 2014년 11월 농지취득 당시부터 자갈이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휴경했고, 향후 농지개량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시는 제출된 의견서를 참고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농지 일부만 도라지와 더덕이 심어져 있었을 뿐 전체 농지의 88.7%에 해당하는 약 1990㎡가 휴경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시는 농지법 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달 중으

로 농지처분의무부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293번지는 우 수석 처가 측이 지난해 3월과 6월 비료와 퇴비를 구입한 카드결제내역과 인건비를 지불한 통장사본 등을 참고한 현장조사에서 영농 사실이 인정됐다.

시는 또 우 수석 처가 등의 차명 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모(61)씨 소유 동탄면 신리 147, 148번지 2개 필지에 대한 청문을 위해 지난 19일 이씨에게 소명자료 제출 요청 통지문을 보냈으나 수취 불능으로 반송됐다.

시는 15일간 공시송달 후 결과를 보고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2필지에 대해서도 처분의무부와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결과 147번지는 장기간 휴경상태로 산림화가 돼 있으며, 148번지는 주택과 주차장 등의 부속시설 부지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상태였다"며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고발 등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yh@news1.kr

'항명 파동' 김영한 전 靑 민정수석 간담으로 별세

지난 21일 숨져...주변에 알리지 않고 장례

(보스턴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 지시에 불응하며 '항명 파동' 논란을 낳았던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59·사법연수원 14기)이 별세했다.

24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간암을 앓고 있던 김 전 수석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별세했다.

그는 간암 투병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숨겼다. 또 자신의 죽음 역시 주변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례식은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김 전 수석의 유족으로는 딸과 노모가 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과거 정부에도 민정수석의 국회 보고 관행이 없었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 문건유출'사건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 현 민정수석이 자신의 지휘라인인 김영한 민정수석을 거스르고 곧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는 등 당시 사건을 청와대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입맛에 맞게 마무리했었다. 일부에서는 김영한 수석이 이 같은 사안에 분노해 항명파동을 일으켰다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전 수석은 대검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구지검 검사장을 거쳐 2012년 대검 강력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고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다. 2014년 6월 민정수석에 발탁됐으나 이듬해 1월 항명파동 뒤 청와대에서 나왔다.

hsb@bostonkorea.com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보스톤의 한글교육, 보스톤한국학교가 책임집니다!

- ☑ **교재가 확실하다!**
- ☑ **교사진이 확실하다!**
- ☑ **한국문화가 확실하다!**

첫째, 뉴잉글랜드 유일의 단계별 학습교재 **아눔이(Anumi)** 교재 사용!

둘째, 교사 경험 3년 이상의 **한국, 미국 교사자격증 보유교사** 유치!

셋째, 붓글씨, 한글, 부채춤, K-POP, 전통놀이, 한국요리 **체험학습!**

결론은 보스톤 한국학교입니다!

BKS 등록금 안내

Tuition: Half Year (16 Saturdays)
 Regular Classes:
 \$310 (one child)
 \$580 (two children)
 \$770 (three children)
 Afternoon Class: \$190 (lunch included)
 개학날: Sep 10 2016
 준비물: 필기도구, 3ring 바인더, 문방, 스넵

28년 전통의 보스톤 한국학교에서 2016-2017 학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 강상철 교장 Email: uno@sangkang.com Tel: 978-509-8708 Web: www.bostonkoreanschool.org

보스톤 **군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고품질의 수업을 저렴한 비용으로!

ASC : Boston's #1 ESL School (F1 Students 환영)



1 ESL Class (6 Levels)

- TOEFL
- Public Speech
- Idioms

3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Pathways Program ASC Pathways Program에서 level 5 이상을 이수하시면 BSU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2 ASC가 특별한 이유! 아래의 대학에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iv. 5) Graduate (i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Ragis College	Worcester College
New York Film Academy	

4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Quincy College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5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CSI 학생이
트랜스퍼할 경우 10% 할인
WhatsApp us Now
617-407-2336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I.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北, SLBM 시험발사 하루만에 대대적 · 이례적 선전...왜?

"내부결속 및 한미연합훈련 대응 차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 이 현지 지도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사진과 동영상 등을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나섰다. 2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의 일대 과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밑에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제목 아래 SLBM 시험발사 사진을 총 24장 실었다.

1면과 2면에 걸쳐 실린 이들 사진에는 김정은이 망원경을 들고 SLBM 발사를 지켜보는 장면, 리병철 당 중앙위 위원과 김정식 당 중앙위 부부장 등과 함께 환호하며 박수치거나 서로 끌어

안는 장면 등이 담겼다. 또 이날 낮 12시30분(평양시간 12시)에는 조선중앙TV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미사일 발사 장면을 동영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앵커의 코멘트나 다른 설명 자막이 붙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SLBM 시험발사 '하루'만에 방송을 통해 동영상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조선중앙TV의 정규 방송시간이 오후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방송시간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선전을 두고 전문가들은 안팎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내

부적으로 태영호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망명 이후 결속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성과를 홍보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역시 "북한군이 한미연합훈련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만큼 '위축될 것 없다', '우리는 다 대비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이번 SLBM 시험발사가 계속해서 선전 소재로 쓰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은 자신들이 이룩했다고 생각하는 성과를 두고 선전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김정은의 리더십까지 부각시키기 위해 사진과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용하겠다는 의지

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24일) 오전 5시30분쯤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발사했

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SLBM은 약 500km를 비행해 지난 수차례 시험발사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flyhighrom@news1.kr



북한이 24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한 모습을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제대로 쏘았다면 '2천km' SLBM 예상못한 '고도화 쇼크'

4월, 실전배치 3~4년 소요 전망...이르면 연내 가능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기존 SLBM 보유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경우 북한의 SLBM 전력화에는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24일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북한이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향후 개발전망과 관련해 이렇게 기자들에게 답변했다. 그도 그럴것이 전날인 4월23일 북한이 동해상에서 발사한 SLBM은 수분간 약 30km를 비행했다. 이는 SLBM의 최소 사거리인 300km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했다. 이날 북한이 SLBM을 해상에서 시험발사한 것은 지난해 3차례에 이어 4번째였다. 지난해 12월 SLBM 초기 비행시험이 실패한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약 4개월 만에 재시도한 것이다. 이후 북한은 지난달 9일 함경남도 신포 동남방 해상에서 다시 SLBM 한발을 발사했다. 지난해 세차례에 이어 총 5번째 시험 발사였다. 이날 SLBM 발사도 사실상 실패로 간주됐다. 4월 발사 때보다 비행거리가 더 짧았기 때문이다. 합참은 이날 북한의 SLBM 시험발사와 관련, 잠수함에서의 사출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초기 비행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반전은 불과 한 달만에 일어났다. 북한이 24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발사한 SLBM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500km를 날라갔다.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1000km 이상을 날아갔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고체 연료를 사용해 연료를 절반 정도만 채운채 비행했는데, 연료를 가득 채웠다면 2000km도 날

아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군 당국이 공식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군 주변에서는 이날 북한의 SLBM 발사 결과를 다소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애초 실전배치에 3~4년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 1년여 만에 6번째 발사로 실전배치가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북한이 상당한 기술진전을 이뤄낸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이같은 성과에 대해 지난해부터 SLBM을 시험발사하며 수차례 데이터를 축적해왔고, 최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발사해 온 노동과 무수단계열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으로부터 얻은 성과를 SLBM에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북한은 올해만 10차례 가까이 스커드, 노동, 무수단 계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핵과 미사일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고 있는 북한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작년부터 시험 발사를 본격적으로 한 것으로 봤을 때, 실제 SLBM에 대한 개발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SLBM이 실전배치된다 하더라도 우리 전력으로 요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반도 배치를 추진중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고도 40~150km에서 마하 14의 속도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볼 때 SLBM도 요격이 가능하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의 특성상 사전 탐지가 쉽지 않아 우리 작전체계와 무기 등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rgus@news1.kr

北김정은 SLBM발사 성공 중의 성공 핵공격능력 완벽보유

조선중앙통신 보도 "美본토 우리 손아귀에"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전날(24일)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해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전날 SLBM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오늘 발사한 탄도탄의 시험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핵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섰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최대발사심도에서 고각발사체제로 진행된 시험발사를 통하여 탄도탄 냉발사체계의 안전성과 대출력고체발동기의 시동특성, 출수후 비행시 탄도탄의 계단별 비행동력학적특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단열분리체제와 조종 및 유도체계들의 믿음성, 재돌입전투부의 명중정확도를 비롯한 탄도탄의 핵심기술지표들이 작전적 요구에 완전히 도달했다는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극악무도한 핵위협 공갈은 도리어 우리의 핵공격 능력을 시시각각으로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했다"면서 "미국이 아무리 부인해도 미 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는 이제 우리 손아귀에 확실하게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또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눈앞에 숨한 핵전력 자산들을 끌어들이고 공화국을 핵선제 공격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면서 심히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했다"며 "우리가 이제 미국의 핵패권에 맞설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다 갖춘 조건에서 일단 기회만 조성되면 우리 인민은 정의의 핵망치로 폭제의 핵을 무자비하게 내려쳐 부정의의 못이 다시는 솟아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통신은 발사 현장에 김정식, 정승일을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일꾼들이 자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24일 오전 5시30분쯤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으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발사한 SLBM은 지난 수차례 시험발사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greenaoami@news1.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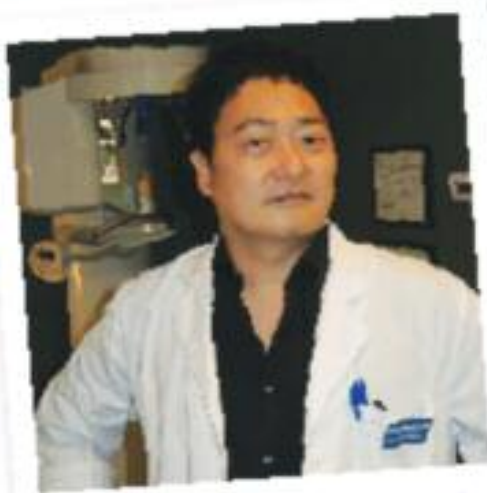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통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하고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통 현
교정 전문의



MSTA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회계: 김 희 용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고문: 구 정 희



고문: 조 형 구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이석수 특감, 차대통령 동생 박근령씨 '1억대 사기혐의' 고발

한 달전 지인 1명 함께 고발, 중앙지검 형사8부 수사
남편 신동욱씨 "6천만원가량 되돌려줘...매달 이자도"

(서울=뉴스1) 조재현, 김수원, 최은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이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검찰과 특별감찰관실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1일 박 전 이사장과 박 전 이사장의 지인 1명을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에 앞선 '1호 감찰'인 셈이다. 박 전 이사장은 앞서 지난달쯤 특별감찰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형사8부는 토지·개발, 건설 관련 비리를 전담하는 부서다.

박 전 이사장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대의 자금을 빌린 후 일부를 돌려주

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이사장의 소환 등과 관련, "현재 수사 초기단계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제도는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할 수 있다. 또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

당 총재(48)는 <뉴스1>과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2013~2014년 무렵 1억 원을 빌린 후 5000만~6000만원 상당을 되돌려줬다"며 "나머지는 매달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당시는) 박 전 이사장의 부채가 8억원에 달해 파산신청을 고려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을 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이야기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2015년 2월 임명됐다.

박 전 이사장은 예전에도 육영재단과 관련된 사기혐의로 기소돼 한 차례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박 전 이사장은 함께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하면 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 7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3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 전 이사장은 1990년부터 육영재단 이사, 1999년부터는 이사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성동교육청이 지난 2004년 육영재단이 미승인 수익사업을 하고 이사회 승인 없이 과다한 비용을 썼다며 이사장 승인을 취소해 현재 육영재단 내에서 아무런 직함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대검은 이날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 횡령 등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과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시민단체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수사팀의 팀장은 앞서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던 윤갑근 대구고검장(52·사법연수원19기)이 맡았다.

cho84@news1.kr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

차대통령, 이철성 경찰청장 등 차관급 임명장 수여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등 차관급 인사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대상자는 이 청장 외에 김동국 인사혁신처장,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 정황근 농촌진흥청장,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석 대통령경호실 차장,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이다.

지난달 28일 내정된 이 청장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24일 박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재가를 받았다.

차관급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다만 경찰청장은 차관급

이지만 지난 2003년 1월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다.

앞서 지난 16일 개각때 정만기 산업부 1차관,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인사가 있었다. 또한 김동국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6월24일, 권태오 민주평화통사무처장과 이영석 대통령경호실 차장은 지난달 6일과 20일에 각각 임명됐다.

birakoca@news1.kr



이철성 경찰청장

여야, 최경환·안종범 뺀 청문회...백남기 청문회 잠정합의

(서울=뉴스1) 김현, 박선미 기자 = 여야3당은 25일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채택과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증인채택에 따른 이전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당초 야당이 청문회 핵심 증인으로 요구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현 정책조정수석), 흥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최·종·택'에서 최 전 부총리와 안 전 수석을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종택 증인 채택을 주장해 온 더민주는 대신 백남기 농민 청문회 개최를 조건으로 이같은 잠정 합의안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3

시30분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같은 잠정안에 대한 추진을 받은 뒤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gayunlove@news1.kr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도읍 수석 방에서 추경안, 청문회 증인채택 등 국회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드배치반대 김천투쟁위원회, 국방부에 '경고' 성명

(대구·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사드배치반대 김천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사드 배치 반대 활동에 나섰다.

투쟁위는 25일 오후 경북 김천시의회에서 김세운 수석위원장을 비롯한 공동위원장 5명, 사무국장, 분과위원장 단장 10명이 모인 가운데 의장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의장단은 공식 명칭 변경과 상시 시민촛불대회 개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면담, 후원회 구성 등을 의결했다.

투쟁위는 오는 29일 오후 7시부터 김천시청 앞마당에서 사드배치 결사반대 시민촛불대회를 매일 개최하기로 했으며, 빠른 시일 내 국방장관과 도지사 면담을 요청해

투쟁위의 공식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투쟁위 활동 자금 마련을 위해 후원회 계좌를 개설하고 시민모금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투쟁위는 이날 김천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드 교육에 항의하며 국방부에 대한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투쟁위 측은 "결의대회를 통해 시민의 뜻으로 엄중하게 경고한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국방부가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드의 정당성을 교육하는 행위는 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사드) 교육을 당장 중단하고 김천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daegurain@news1.kr



25일 사드배치반대 김천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국방부에 항의하는 경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무제한 BBQ 스페셜

All You Can Eat!
맛있는 배부름~~

다양하고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COURSE "A" \$25.95

불고기/차돌배기/치킨 테라야끼/치킨 불고기/불닭/돼지 갈비
대패 삼겹살/돼지 통살/돼지 불고기/곱창구이/돈까스/치킨캐스
야채/떡볶이/순두부찌개/김치찌개/계란찜/공깃밥/안두류김

COURSE "B" \$28.95

COURSE "A" 포함

갈비/LA갈비/통삼구이/흑돼지 삼겹살/매운 흑돼지 삼겹살
새우구이/쭈꾸미구이/모듬 어구이/새송이버섯/비빔구이
오살불고기

LUNCH SPECIAL \$18.95

불고기/치킨불고기/차돌배기/돼지 삼겹살/돼지불고기
돼지갈비/치킨 테라야끼/불닭/모듬 어구이/순두부찌개
된장찌개/계란찜/공깃밥/떡볶이



영업 시간

월-목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0시
금, 토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1시

단체모임에 좋은
Private Room 제공
(40-50인)



특집하고 맛있는
수라 BBQ와 함께
소주 한잔 어떠세요?

수라 BBQ 보스턴
781.391.5606

27-29 Riverside Ave. Medford, MA 02155
(구) 청기와 식당 위치



지나 정 사원이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 체크계좌
모바일 뱅킹
은퇴자금 관리 서비스
모기지
상업용 부동산 대출
사업 및 투자 대출

울스톤 지점을 방문하셔서
지나 정 사원을 찾아주세요

 **East Boston
Savings Bank®**

181 Brighton Avenue
800.657.3272 ebsb.com



Member FDIC, Member DIF.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주승원
617.780.783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안녕하세요?

그동안 보스톤 뉴스타 부동산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회사가 이렇게 크게 성장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의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미국 경제계의 대부인 웨렌 버펫이
소유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Berkshire Hathaway)와
새로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폭 넓은 정보와
질 높은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게 됨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의 새 얼굴인 버크셔 해서웨이
뉴잉글랜드 프라임은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도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고,
미 전역에 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세상에서 일하실
큰 꿈을 키우고 계신
에이전트 선생님을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ichael Yoon
617.459.5985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보스톤 뉴스타가 버크셔 해서웨이로 다시 태어납니다!



Steve Son
617.290.0623



Shell Yu
781.526.2416



OT Kim
617.620.8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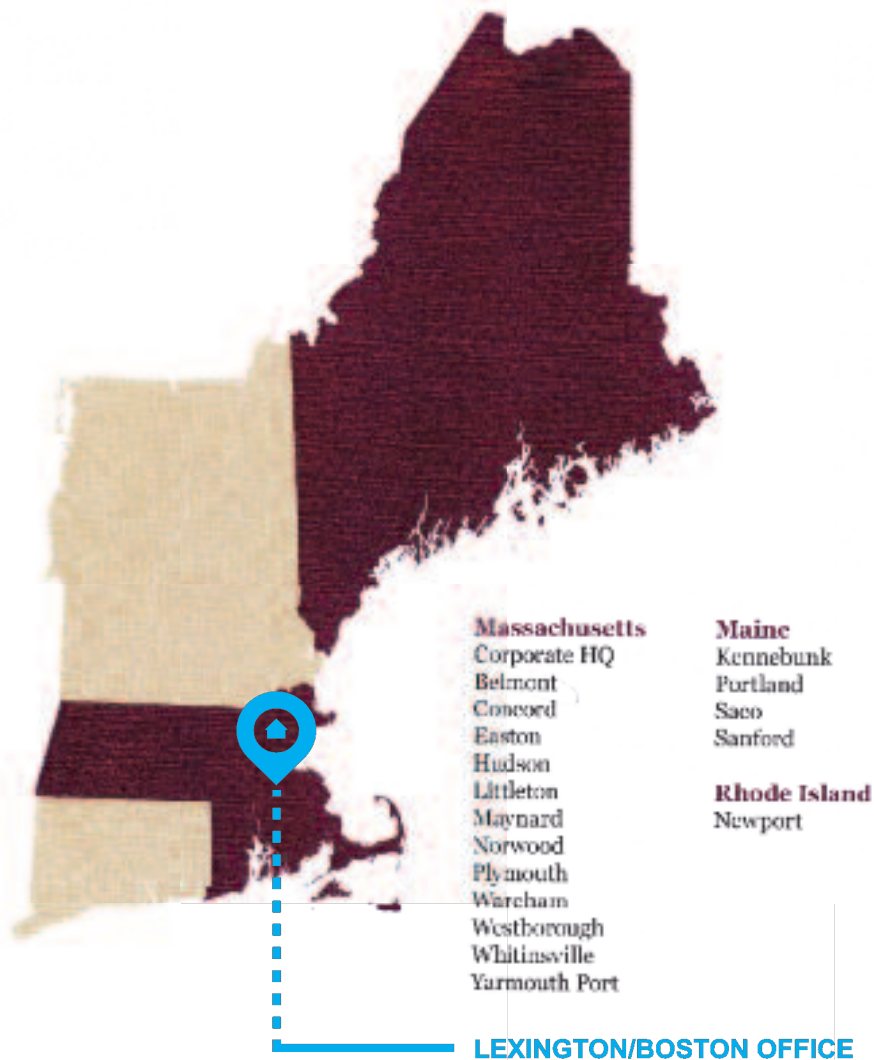
Gina Choi
978.866.3248



AI Magurn
508.733.2949



OFFICE LOCATIONS



Good to know.™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Maria Koral
978.973.6043



Sara You
617.899.3566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AFC 동부지구 팀들의 2016 시즌 변수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10년 이 넘는 기간 동안 AFC 동부지구의 강자로 군림해 왔다. 지난 13시즌 동안 패트리어츠는 12번 지구 1위를 차지했고, 그나마 2위를 했던 2008 시즌은 쿼터백 탐 브래디가 개막전에서 부상을 당해 잔여 경기를 전혀 하지 못했을 때다.

올해 패트리어츠는 첫 4경기에 브래디가 출전할 수 없다. 브래디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패트리어츠가 지구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가 AFC 동부지구 최고의 관심사다. AFC 동부지구 팀 성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선수들을 살펴보자.

Buffalo Bills: RB Reggie Bush

빌스가 카를로스 윌리엄스를 지난 주말에 전격적으로 방출하면서 레지 부쉬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주전 러닝백인 르선 맥코이를 백업하는 동시에 패싱 게임에서의 역할도 더욱 늘어났고, 3번째 다운에서의 비중도 늘어났다.

부쉬의 가장 큰 장점은 패스를 받은 후에 더욱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친다는 점이다. 렉스 라이언은 최근에 부쉬를 페라리에 비유했다. 패스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러닝백인데다가, 패스를 받은 이후에 폭발적인 공격력을 뽐내기 때문이다. 쿼터백 티로드 태일러와 호흡만 잘 맞는다면 부쉬는 후방에서 침투하는 리시버로서 빌스의 공격력을 크게 높여줄 수 있다.

Miami Dolphins: CB Byron Maxwell

바이런 맥스웰은 2013년과 2014년에 시호크스의 유니폼을 입고 있을 당시 리그 최고의 코터백이었다. 그러나 이글스와 6년, 6천 3백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성공시킨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어버렸다.

올해 돌핀스는 이글스에 드래프트 1라운드 선택권(전체 8순위)을 주고, 맥스웰과 키코 알론소, 그리고 드래프트 1라운드 선택권(전체 13순위)을 받았다. 돌핀스는 맥스웰이 시애틀에서 활약을 펼칠 때로 돌아가길 기대하고 있다. 상대 리시버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사이드라인 근처에서 몸싸움에 밀리지 않던 맥스웰의 모습을 올해 볼 수 있을지에 따라 이글스의 수비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New England Patriots: OG Jonathan Cooper

이미 라이트 태클 세바스찬 볼머와



빌스의 러닝백 레지 부쉬는 캐칭 능력이 뛰어난 러닝백이다

가드 샤크 메이슨, 트레 잭슨이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패트리어츠는 수준급 오펜시브 라인맨이 부족한 상태로 올해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난 시즌 패트리어츠의 발목을 잡았던 오펜시브 라인 문제가 올해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첸들러 존스를 카디널스로 트레이드하면서 패트리어츠는 조나다 쿠퍼를 얻었다. 어쩌면 쿠퍼는 자신이 2013 드래프트에서 왜 1라운드(전체 7순위)에

선택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처음으로 갖게 되었을 수도 있다. 대학 시절 인테리어 라인맨으로 악명이 높았던 쿠퍼가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면 옛 명성을 회복할 수도 있다.

New York Jets: TE Jace Amaro

지난 시즌 제츠의 패싱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쿼터백 라이언 피츠패트릭을 중심으로 브랜든 마샬, 에릭 데커 등의 리시버들이 공격을 이끌었다. 그러

나 타이트엔드는 눈에 띄지 않았다. 지난 시즌 제츠에 타이트엔드는 단지 8개의 패스만을 받았다.

지난 시즌 안면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던 제이스 아마로는 제츠의 패싱 공격을 더욱 강력하게 할 것이다. 특히 6피트 5인치에 달하는 아마로를 레드존에서 수비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jsi@bostonkorea.com

김현수, 2안타 2득점 활약...오승환은 1이닝 퍼펙트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가 5일만에 안타행진을 재개하며 팀 승리를 견인했다.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크게 앞선 상황에서 등판해 1이닝을 깔끔하게 막았다.

김현수는 24일 워싱턴 DC의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와 경기에서 2번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장해 6타수 2안타 2득점을 기록했다.

김현수는 지난 20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 이후 5일, 3경기만에 안타를 추가했다. 시즌 타율도 0.318로 소폭 상승했다. 시즌 득점은 30득점이 됐다.

김현수는 1회초 첫 타석에서 대량득점의 물꼬를 트는 안타를 뽑아냈다. 1사 주자없는 상황에서 워싱턴 선발 대니 로어크를 상대한 김현수는 3볼2스트라이크 풀카운트에서 6구째 92마일(약 148km)짜리 직구를 받아쳐 좌전안타로 연결했다.

이후 볼티모어 타선이 폭발했다. 매니 마차도의 2점홈런으로 김현수가 홈을 밟았고 이어진 1사 만루 찬스에서 조나단 스콧의 몸에 맞는 공으로 밀어내기 득점이 나왔다. 볼티모어는 J.J. 하디의 희생플라이까지 묶어 1회에 만 4점을 냈다.

1회말에는 시즌 두 번째 보살도 기록했다.

2사 1,3루에서 앤서니 랜던의 안타가 좌익수 방면으로 향했다. 김현수는 공을 잡아 정확하게 유격수에게 전달했고, 유격수 하디가 홈에 던져 1루주자를 잡아내 이닝이 종료됐다.

김현수는 2회에도 타석에 들어섰지만 이번엔 4구만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4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섰지만 좌익수 직선타에 그쳤다. 6회 역시 선두타자로 등장해 삼진으로 물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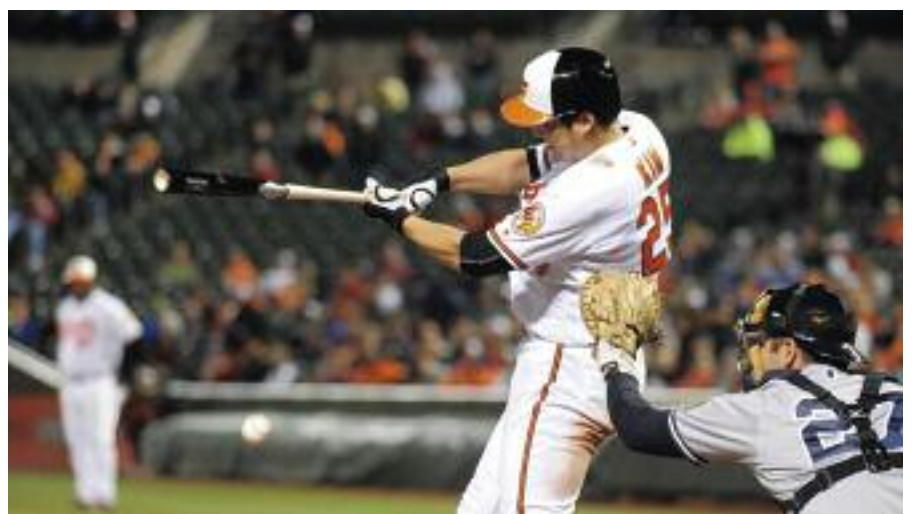
8회에는 다시 대량 득점의 물꼬를 텄다. 1사 주자없는 상황에서 5번째 타석을 맞이한 김현수는 상대 세 번째 투수 블레이크 트레이넨의 2구째 슬라이더를 받아쳐 좌중간 2루타로 연결했다. 이번에도 후속 타자 마차도의 적시타로 홈을 밟았다.

볼티모어는 이 득점을 시작으로 맷 위터스의 3점홈런 등으로 8회에만 5점을 뽑았다. 10-3으로 벌려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김현수는 9회에도 타석에 나섰지만 좌익수 뜬공에 그쳤다.

볼티모어는 9회말 대거 5점을 내주며 흔들렸지만 결국 10-8로 승리를 거뒀다. 3연승을 달린 볼티모어는 시즌 70승(56패) 고지를 밟고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3위를 유지했다.

오승환은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서 8-1로 크게 앞선 9회초 등판해 1이닝을 퍼펙트로 막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

았다.

지난 20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서 2이닝을 던진 이후 5일만에 등판한 오승환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1.79로 끌어내렸다. 오승환은 이날 3타자를 상대하면서 12구를 던졌다.

세인트루이스는 이날 19안타를 뽑아내며 대량 득점했다. 마운드에서는 선발 카를로스 마르티네스가 8이닝 1실점으로 버텼다. 9회에는 세이브 상황은 아니었지만 실전 감각 조율을 위해 마무리 오승환을 마운드에 올렸다.

오승환은 간단하게 1이닝을 막았다. 선두타자 알레한드로 데아자를 2구만에 2루 땅볼로 잡아낸 오승환은 후속타자 제임스 로니 역시 4구만에 2루 땅볼로 처리했다.

오승환은 아스트루발 카브레라 역시 6구만에 2루 땅볼로 처리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했다.

전날 패배를 설욕한 세인트루이스는 시즌 전적 67승58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를 유지했다.

starburyny@news1.kr

POS 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촌: A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s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촌: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s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617.470.1083
us@yahoo.com

김동섭 목사님 취임 예배 초대

COME CELEBRATE WITH OUR FAMILY AS WE FORMALLY INSTALL PASTOR SAM KIM AS THE SENIOR PASTOR OF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김동섭목사님의 취임예배에 초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COME ON OVER FOR SOME PRAISE, WORSHIP, AND CELEBRATION!

DATE
SEPTEMBER 11, 2016

TIME
1:00 P.M. INSTALLATION SERVICE
2:15 P.M. FEAST

LOCATION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다문화 선교 교회)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 845

RSVP AND DETAILS
<https://www.facebook.com/events/1054231774661060/>
or
interculturalmission@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a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박인비 신드롬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1904년 세인트 루이스 올림픽에는 아예 골프종목이 없었다. 남녀 Top 랭커들이 불참했기 때문에 대회가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상금을 주는 것이 올림픽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마가렛 애벗이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고 116년 만에 우리의 박인비 선수가 제2회 골드메달리스트가 되었다. 박인비는 지난해 브리티쉬 오픈 우승으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이룩해서 세계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한 선수가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금번 올림픽 우승을 추가해서 그는 일찍이 아무도 이루지 못한 Golden Grand Slam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리우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박인비의 올림픽 출전은 아주 많은 의문점을 안고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손가락 부상으로 시즌 내내 고생했고 원래 있었던 허리통증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시험 삼아 출전한 삼다수 마스터스에서는 컷오프까지 당했다. 손가락 부상이 원인이었다. 3개월 넘게 고생했던 선수가 올림픽의 중압감을 극복하고 최상의 기량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주위에서는 그동안 박인비 선수가 몇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으니 후배들에게 출전을 양보하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여론은 그게 아니었다. 박인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올림픽은 4년을 기다려야 비로소 출전권이 확인되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8년 후에 그 기회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작년의 British 여자 오픈 때도 박인비 선수는 허리부상으로 내내 고생했었다. 통증을 무릅쓰고 분전한 노력으로

박인비가 그랜드 슬램으로 모든 메이저를 한번이상 우승한 선수가 되었다. 이번 올림픽에도 마지막 순간 박인비는 출전을 결정했다.

박인비는 이번 올림픽에서 매 라운드마다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매순간 메이저대회 마지막조로 경기하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 고 밝혔다.

대회전부터 박인비를 괴롭혔던 손가락 부상에 대해 “원래 손가락 상태가 좋지 않았다. 훈련하면서 재활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Taping을 한 채로 연습을 하다 보니 손가락의 감각이 떨어졌다. 마지막 주에는 tape를 제거하고 그대로 연습했다. 통증은 더 심해졌지만 샷 감각은 더 좋아지게 되었다.

일주일만 참고 버티자로 일관했더니 오히려 편안해졌다. 금년도 여자올림픽 금메달 우승은 두 사람으로 좁혀지고 있었다. 일 순위가 지난 한달 동안 3번의 연속우승을 기록했고 금년의 British Open을 재패한 아리아 주타누간이고 또 한사람은 금년에 3번 우승을 기록한 리디아고 선수였다.

박인비 선수는 한국에서 있었던 시합에서조차 탈락했기 때문에 우승후보와는 거리가 멀었다. 예상했던 대로 첫날은 주타누간이 선두를 차지했고 박인비는 2위가 되었다.

모두가 주타누간이 계속 선전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두 번째 날에 이번이 생겼다. 잘나가던 주타누간이 콰드러플 보기까지 하면서 고전하다 아예 기권해버렸다.

나는 이것을 “박인비 신드롬” 이라고 부른다. 의례 잘나가다가 박인비에게는 주눅이 드는 현상이다. 이번 올림픽 여자 골프에서도 똑같은 박인비 신드롬을 볼 수 있었다.

Lexi Thompson에 이어 Brook Henderson, Stacy

Lewis, Gerna Piller에 이르기까지 모두 순서대로 무너졌다. 리디아고 선수 역시 5타차이로 간신히 체면유지를 하고 은메달을 차지했고 3위는 중국의 샤산펑 선수가 차지하였다.

LGPA 공식 해설자인 Karen Stuffles는 앞으로 올림픽 골프의 전망에 대해 말하기를 한국, 영국, 스웨덴은 물론이지만 아일랜드, 인도등지에서 더 많은 골프붐이 불어 닥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Golf Major에서 우승하는 것이 최상의 영예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것이 최상의 영예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NBC해설자 Chamblee는 박인비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박인비는 7번의 major 토너먼트를 3 strokes 이상의 점수로 5번을 다 우승하고 있다. 남녀를 통틀어 이렇게 압도적인 스코어 차로 우승한 예가 없었다. 그는 박인비의 putting은 한마디로 남녀 통틀어 그녀를 이길 사람은 없다고 평했다.

NBC TV와의 대담에서 박인비 선수가 말한 내용을 찾아 보았다.

“한국을 대표한다는 부담감을 견뎌내 자랑스러웠다.”

“박인비를 위한 경기는 많이 했지만 오늘은 내 조국을 위해 경기했다.”

“메이저에 우승하는 것보다 나라를 대표해서 우승하는 것만큼 특별한 것은 없다.”

도쿄 올림픽 출전에 대해서는 “도쿄올림픽 출전을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그때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면 올림픽 2연패는 좋은 목표가 될 것 같다.”

“마지막 18홀에서 튼튼 애국가는 어느 노래보다 최고였다.”

“용기를 낼수 있게 해준 남편이 있어 행복하다.”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3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호를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즉,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압통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등 / 허리 / 골반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허벅지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어러지, 소화불량
- 교통/직장/운동 사고: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후유증 해소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가원기별 특별

- 카이로프랙틱 상담
- 당일 척추 정지
- 8200mg. 12500
- 7월18일 - 1월31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삼성생명PPO, 현대기아, 한국/유학병/여학생/교통신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9am-8pm
토(Sat) : 10am-12pm
일(Sun) : Closed



보스턴 건스태드 카이로프랙틱

Tel. 617.277.0648

77 Pond Ave, Suite 101, Brookline, MA 02445
Email: boetongonstead@gmail.com
Web: www.bostongonstead.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견인	617-338-2352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베이어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리즘/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환선고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대한교도연맹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NH)	603-898-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행사주세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파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한인협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복5도도인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동체(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 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산악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예수애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빌드그린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 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제일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머 빌렐교회	978-274-2369
엘화스트 한인장로교회	781-326-9009
엘화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십프로피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시영성장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턴 정관장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클린데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중.루팡사이드 청문	617-999-9616
아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레스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영욱)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온상래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딘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열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루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 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MIN-AH MAKEUP	97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앤티비보스톤사립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광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곤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곤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지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근민	617-696-7600
하버드뱅크(이재웅)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신경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웨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주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턴컨스테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캐스	617-871-1482
퀸지소아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랜트	781-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기타 메모리리빙원(병리)	203-330-8080
문히어름 보정기	781-573-3277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이문형 보험	781-325-3406
조종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코치인존합보험	617-782-8800
윤광현 생명보험	978-390-4738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	--------------

부동산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산후조리 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T. 781-400-3929

Chelmsfords에 있는 Care Cleaners에서
매니저와 카운터 보실분 구합니다.
T. 603-401-0113

렉싱턴소재 한국식당 (한식/일식)
풀타임 웨이트레스/웨이터 구함.
T. 781-860-0171 (Kay)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뉴햄프셔 네슈아 한식/일식 식당 매매.
좋은 위치, 9년째 성업 중
T. 603-882-8644 (오후 4시 이후)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NEWS CHANNEL 5, 7, 10, 13, 22, 25, 35, 40, 44, 47, 48, 50, 52, 54, 58, 60, 63, 65, 67,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100



'밀정', 뜨거운 사람들이 모여 만든 영화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밀정'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기대 속에 베일을 벗었다. 김지운 감독은 주특기인 스타일리시한 연출보다 뜨거운 진심을 쏟아내며 영화를 만들었고, 배우들 역시 캐릭터에 깊게 몰입한 모습으로 감동을 전 달했다.

25일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CGV 왕십리에서는 영화 '밀정'(감독 김지운) 언론시사회가 열렸다. 이날 김지운 감독과 배우 송강호, 공유, 한지민, 임태구, 신성록 등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이 작품을 시작할 때 김지운 감독은 쿨드 누아르를 생각했다.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스파이 영화는 매력적인 설정이었다. 김 감독은 "차갑게 시작했지만 뜨겁게 끝이 났다"며 시대적 배경의 특성상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영화였다고 설명했다.

가슴 저릿한 연기를 보여준 송강호는 김지운 감독과 네 번째 협업이다. '조용한 가족', '반칙왕', '놈놈놈'에 이어 또다시 재회한 송강호에 대해 김지운 감독은 놀라움을 표했다. "저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궁금했다"며 송강호의 연기력을 칭송한 그는 송강호의 역할이 컸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감독의 칭찬에 머쓱해하던 송강호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아픔을 다룬 많은 작품들을 접해왔지만 '밀정'이 가진 독창성이 있다. 아픈 시

대를 관통했던,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많은 분들의 갈등과 고뇌,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초점이 이 영화의 독창성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밀정'은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시대가 만들어낸 인물들,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 주는 고뇌를 억지스럽지 않게 그려내 눈길을 끈다. 송강호의 연기가 설득력을 더했다.

공유 역시 액션신을 다채롭게 소화하며 남다른 카리스마를 뽐냈다. 무엇보다 슈트핏이 돋보적으로 빛났다. 한지민은 작은 체구로 의열단원 역에 몰입해 혼신의 힘을 다한 열연을 보여줬다. 임태구는 악역 끝판왕으로 소름 돋는 눈빛을 보여준다.

특별출연한 이병헌의 존재감도 대단했다. 김지운 감독은 "아무래도 의열단장이니까 카리스마와 냉정함, 인간적 면모를 다 고려했다. 내심 속으로 이병헌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바쁜 척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있어서 촬영을 했다"고 캐스팅 비화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밀정'은 1920년대 말, 일제의 주요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상해에서 경성으로 폭탄을 들여오려는 의열단과 이를 쫓는 일본 경찰 사이의 숨막히는 암투와 회유, 교란 작전을 그린 작품이다. 내달 7일 개봉.

uu84@news1.kr

'월계수' 차인표, 라미란과 부부 캐스팅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배우 차인표가 라미란과 부부로 캐스팅된 소감을 밝혔다.

차인표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5층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KBS2 새 주말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극본 구현숙/연출 황인혁) 제작발표회에서 "캐스팅이 되면 상대역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냐. 보통 제가 먼저 캐스팅됐는데 이번에는 섭외 단계부터 '부인은 라미란 씨'라고 들어왔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유레카' 외쳤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차인표는 "정말 같이 해 보고 싶었던

배우고 궁금하기도 했다. 기존에 같이 연기했던 여배우들과 사뭇 컬러가 다른 분"이라며 "별명을 '여자 송강호'로 지어줬다. 제가 송강호 씨를 좋아한다. 그만큼 연기를 잘한다는 뜻에서 지어줬다"고 덧붙혔다.

한편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월계수 양복점을 배경으로 사연 많은 네 남자 이동진(이동진 분), 배삼도(차인표 분), 성태평(최원영 분), 강태양(현우 분)의 눈물과 우정, 성공 그리고 사랑을 그린 다. 오는 27일 저녁 7시55분 첫 방송.

hjk0706@news1.kr



정우성의 변신, 지금까지의 모습은 잊어라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배우 정우성이 김성수 감독의 범죄액션영화 '아수라'(阿修羅)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생존형 비리 형사 한도경으로 돌아온다.

'비트'와 '태양은 없다'로 청춘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정우성은 멜로 영화 '내 머리 속의 지우개'로 여심을 흔들었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서 선보인 스타일리시한 액션으로 남녀 관객 모두의 마음을 훔쳤다.

데뷔 이래 20여 년간 스타의 길을 걸었던 정우성은 '아수라'를 통해 빛보다 강한 어두움, 선보다 강렬한 악으로 물든 악인들의 세계로 발을 들인다.

한도경은 말기 암 환자인 아내의 치료비를 위해 약덕 시장 박성배(황정민 분)의 은곳 더러운 뒷일을 처리해 주며 돈을 받아온 비리 형사다. 정우성은 필모그래피 사상 가장 지독하고 악한 인물을 선보인다.

약덕 시장과 그를 잡으려는 검찰 사이에서 태풍의 눈이 되어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한도경을 통해 처절함과 악함을 오가는 입체적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캐릭터 스틸은 한도경의 상처 가득한 얼굴과 처연한 표정을 통해 그가 표현해낼 강렬한 드라마를 기대하게 한다.

uu84@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8월 15일 ~ 2016년 8월 21일

Nielsen Media TV 자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9.8%
2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21.4%
3	SBS	월화드라마(닥터스)	20.8%
4	KBS2	해피선데이(2부(1박2일))	19.9%
5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19.4%
6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17.5%
7	KBS1	KBS9시뉴스	16.9%
8	KBS1	가요무대	14.6%
9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14.4%
10	MBC	무한도전	13.0%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3	SBS	TV소셜(내 마음의 꽃비)
4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5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6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7	SBS	주말드라마(그래그런거야)
8	SBS	일일드라마(당신은선물)
9	MBC	일일연속극(다시시작해)
10	SBS	주말특별기획(끝에서두번째사랑)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휘파람	BLACKPINK
02	puzzle	씨잼
03	Why So Lonely	원더걸스
04	여름밤에 우린	스탠딩 에그
05	너 그리고 나 (NAVILLERA)	여자친구
06	Day Day (Feat. 박재범)	BewhY
07	CHEER UP	TWICE
08	널 사랑하지 않아	어반자카파
09	Forever (Prod. By GRAY)	BewhY
10	Whatta Man (Good man)	아이오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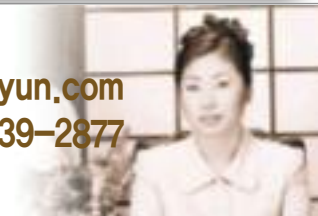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1	7		8				9	5
			9	5	7			
		9			2			
4		1				3		7
	3						1	
9		2				8		4
			7			4		
			6	2	4			
2	4				1		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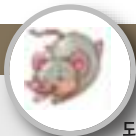
8월 28일 - 9월 3일

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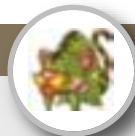
●운수:그 어느 때보다도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기회라 생각 되면 꼭 잡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금전: 거두어들이는 수확의 시기입니다. 풍성한 가을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처럼 보는 것만으로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애정:혼자 공경되면서 고민하지 말고 대화를 나누어보세요. 함께 의논할수록 좋은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30, 2일 길일, 28, 31일 주의.

소띠 |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운수:다른 사람이 믿어주기를 바라기 전에 우선 스스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서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아야 합니다. ●금전: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얼마나 남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얻는 것이 크게 다를 것입니다. ●애정: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31, 3일 길일, 29, 1일 주의.

범띠 | 일을 분담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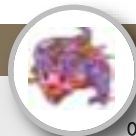
●운수:혼자서 다 하려고 하다가는 자신의 몸만 축이 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거나 분담하도록 하세요. ●금전: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들쭉날쭉 합니다. 많이 들어올 때에 잘 챙겨두어야 하겠습니까. ●애정:믿음이라는 것은 한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믿어주고 어디까지 의심을 해야 하는지 아직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8, 1일 길일, 30, 2일 주의.

토끼띠 | 두루두루 잘 살피면서



●운수:세상살이가 나 혼자인 줄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루두루 주변을 잘 살피면서 가야 하겠습니까. ●금전: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훗날에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애정:상대가 원하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정말 상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9, 2일 길일, 31, 3일 주의.

용띠 | 기쁨을 주는



●운수:음지에서 양지로 나간 것 같이 갑자기 자신의 주변이 환해집니다. 유익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까. ●금전: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중요한 일은 지금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로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때입니다. ●애정:마음이 통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88, 76, 64, 52, 40, 28년생은 30, 3일 길일, 29, 1일 주의.

뱀띠 | 지출을 신경 써서



●운수:정작 중요한 것은 놔두고 엉뚱하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금전:들어오는 것이 있지만 나가는 것도 많습니. 지출을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남은 것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애정:연인이나 부부간에 성격차이로 다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낯설게 느껴집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8, 31일 길일, 30, 2일 주의.

말띠 |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



●운수:다소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 곧 올 것입니다. ●금전:투자나 매매는 보류해야 합니다. 한푼 두푼 모으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한 순간인 것입니다. ●애정:진실을 알고 나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갔으면 모를까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9, 1일 길일, 31, 3일 주의.

양띠 | 말수를 줄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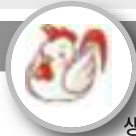
●운수:접촉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금전:지금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수익과 직결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애정:말수를 줄여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이 한 마디를 하면 다른 사람은 열 마디를 하니 자연히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8, 2일 길일, 1, 3일 주의.

원숭이띠 | 이리저리 계산하게



●운수: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표정을 하지 마세요. 좋지 않은 인상을 주거나 나쁜 영향을 줄 뿐입니다. ●금전:금전문제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정해진 돈에서 지출해야 하니 이리저리 계산하게 됩니다. ●애정: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것도 다 해주고 싶은 정도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31, 3일 길일, 29, 2일 주의.

닭띠 | 일생일대의 기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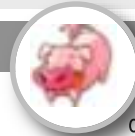
●운수:같이 일하자는 제의가 들어옵니다. 잠만 잡으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수입이 증가하니 얼굴에 혈색이 돌 것입니다. 노력한 것만큼 얻는 것이 있으니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애정: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주겠지 바라지 말고 먼저 주고자 하는 마음을 내면 더 큰 것을 받게 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30, 1일 길일, 28, 3일 주의.

개띠 | 해결책을 찾고



●운수:여러 날 고민하게 하던 일이 드디어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한숨 돌리게 되니 심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금전: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왔습니다. 매매나 문서로 인한 이익을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애정:진정으로 사랑할만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8, 30일 길일, 29, 3일 주의.

돼지띠 | 큰 것을 행기도록



●운수: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을 두고 보기 힘들어서 고심하게 됩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금전:적은 돈을 아끼려다가 큰돈을 쓰게 되는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은 것은 내어주고 큰 것을 행기도록 하세요. ●애정: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금방 탄로 날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9, 3일 길일, 30, 2일 주의.

열애설 잦았던 김고은 첫 연애 상대는 신하균

(서울=뉴스1스타) 이진욱 기자 = 배우 김고은이 17세 연상 신하균과 사랑을 시작했다. 양측 소속사는 "예쁘게 지켜봐달라"는 말로 두 사람의 열애를 인정했다. 신하균과 김고은은 바다를 좋아한다는 공통점과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고은이 열애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3년 변요한과 열애설이 불거진 당시엔 "친한 사이"라고 해명했다. 두 사람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선배로 친분이 있지만 열애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엔 김동욱과의 열애설도 있었다. 30분 만에 종료된 해프닝이었다. 해외에서 포착된 두 사람은 사실 스킨스쿠버 동호회 모임을 위해 여행을 떠났던 것.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 자리에 신하균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다.

신하균은 최근 '올레'(감독 채두병) 개봉을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김고은과



김동욱 열애설 보도 당시 내 얼굴은 모자이크돼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신하균과 김고은의 열애설이 불거지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열애를 인정한 두 사람은 최근 서

울 모처의 식당 등에서 데이트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후문이다.

한편 김고은은 드라마 '도깨비' 여주인공으로 낙점됐다.

star@news1.kr



임태웅 고소女, 사기 혐의로 구치소 수감 중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배우 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30대·여)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3일 임태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웅은 올해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이달 22일 분당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고소인 A씨가 현재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돼 지난달 12일 법정 구

속됐고 3일 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임태웅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정확한 내막은 확인이 안 됐다. 한쪽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조사할 예정이다. 임태웅의 소환 여부도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임태웅 소속사 키이스트 측 관계자 또한 "현재 임태웅 소식 관련해 사실을 확인 중이다. 입장은 이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nahee126@news1.kr

JTBC 측 "탁재훈, 건강프로그램 '슈퍼맨을 만나다' MC 확정"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방송인 탁재훈이 JTBC 새 프로그램 MC로 나선다.

오는 25일 오전 9시 첫방송되는 JTBC '슈퍼맨을 만나다'는 세계 각국의 건강비법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슈퍼맨'을 찾아 그들의 비결을 배우

고 전수하는 토크쇼다.

탁재훈이 평일 오전 시간대 건강 프로그램의 MC로 출연한다.

탁재훈은 '슈퍼맨을 만나다'를 통해서 JTBC 아나운서 송민교와 MC로 호흡을 맞춘다. 송민교 아나운서는 '백세의 품격-진시황' '뉴스현장'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프로그램 진행 실력을 선보였다.

'슈퍼맨을 만나다'의 패널로는 이홍렬, 김나운, '덕혜옹주'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방송인 아키바리가 함께 출연한다.

reddgreen35@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형,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eunautobody@yahoo.com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R.A. & N.Y.) • B0498 • GDT • LMB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풍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상업용 주택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보플레이 8월 3째주 시청률 BEST10

1	KBS	아이가 다섯
2	MBC	옥중화
3	KBS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4	MBC	가화만사성
5	KBS	별난가족
6	KBS	여자의 비밀
7	SBS	그래그런거야
8	SBS	당신은 선물
9	MBC	다시시작해
10	SBS	끝에서 두번째 사랑

티보플레이 8월 3째주 신규 방송

1	CJ	내 귀의 캔디
---	----	---------

티보플레이 8월 3째주 최신 영화

'구르미' 보유커플 티격태격 케미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배우 박보검이 김유정 내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 본격적인 티격태격 케미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지난 23일 밤 10시 방송된 KBS2 새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극본 김민정 임예진/ 연출 김성윤 백상훈) 2회에서는 홍라온(김유정 분) 내시 만들기 돌입한 이영(박보검 분)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중전(한수연 분)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급히 뛰쳐나간 검서관 덕분에 양물 검사에서 통(通, 합격)을 받은 라온. 목숨은 건졌지만 점점 최종 합격에 가까워지자 마음은 무거워졌고 출궁을 목표로 시험 답안지를 짚는 꼼수를 부렸다.

하지만 시험장 앞에서 라온을 발견한 영은 "어릴 적부터 내관이 꿈이었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고 장내관(이준혁 분)의 웃을 빌려 입은 채 시험장에 등장했다.

모든 내관을 내쫓은 영은 라온에게 대놓고 답을 알려줬고 일부러 번호 하나로 통일한 답안지마저 바꿔줬다. 내시가 되지 않으려는 라온과 기를 쓰고 돕는 영의 잔망스러운 케미로 흐뭇한 웃음이 배어나오는 대목이었다.

덕분에 라온은 1차 시험에서 통을 받았지만 마지막 2차 시험의 답안지를 백지로 내며 출궁 통보만을 기다렸다.

하나 출궁은커녕 도기(태항호 분)의 질문지에 대신 답을 써준 것이 화근이 돼 목숨이 위협해졌다. 라온이 대신 쓴 답안지를 보며 정도령(안세하 분) 생각에 눈물짓던 명은공주(정혜성 분)가 이내 연서와 시험 답안지 필체가 일치하는 것을 깨달은 것.

연서를 대필해 공주를 능멸한 죄로 끌려온 라온. 그리고 화가 난 명



은공주가 칼을 들어 라온을 내리치려는 순간 "멈춰라"며 등장한 영. 과연 영은 라온을 위기에서 구하고 내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nahee126@news1.kr

엄현경, 휴가 욕구 자극하는 '먹방 투어' 마무리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연기자 엄현경이 루앙프라방에서 씹고 뜯고 맛보는 먹방 여행을 마무리했다.

엄현경은 최근 올리브TV '원나잇 푸드트립'을 통해 먹방 투어는 물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팡시 폭포에서 수영을 한 후 팡시 폭포에 오기 전에 사온 맥주를 즐기며 무더위를 날렸다. 루앙프라방에서 유명한 흑맥주와 밀맥주를 맛보며 팡시 폭포가 준 행복한 시간을 만끽했다.

이후 엄현경은 자전거로 루앙프라방의 자연을 즐기며 투어를 즐겼다. 선선하게 부는 바람을 맞으며 자연을 즐겼다.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곳곳에 프랑스의 생활 양식에 루앙프라방만의 사원까지 독특한 루앙프라방만의 문화를 즐길 수 있었다.

엄현경은 원나잇푸드트립을 통해 루앙프라방에서 1박2일 동안 10개의 도장을 받으며, 즐거운 먹방 투어를 마무리했다.

uu84@news1.kr



TBO
PLAY

보스톤권 24시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같이 타사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The Best Underdog, ybo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e 500
Boston, MA 02116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seon@bostonpremierrealty.com

LISTINGS

- | | |
|--|--|
| 1. Full Plant 아파트 : 옥상정원, 주차, 무동선 에어컨 \$1,399,000 SOLD | 2. Single family : 22 Willow park, Woburn SOLD |
| 2. Full Plant 아파트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895,000 | 3. 2-Beds + 2.5 Bath + 2 Car Garage in Watertown SOLD |
| 3. Full Plant 아파트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189,000 | 4. Single family : 25-25 Cedar St., Boston SOLD |
| 4. Full Plant 아파트 : West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90,000 | 5. 아파트 단지 : Allston SOLD |
| 5. 코네티컷 스토어 : Overton에 위치, \$40,000 | 6. Single family : 4 Bed, 2.5 Bath, 2100 Sq. Ft. Oak Grove, Boston SOLD |
| 6. 코네티컷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75,000 | 7. Office : 47 Haver Ave Unit 2-3 Cambridge SOLD |
| 7. 보스턴 오피스 빌딩 : Asking \$225,000 SALE PENDING | 8. Office : 47 Garden St. Unit 1 Allston SOLD |
| 8. 아파트 : 224 Hammond St. South Boston \$5,400 RENTED | |

NEW LISTINGS

 오피스 12-14 Ely St, Unit 602 Cambridge 2 Bed 2 Bath, 현대식 eq, 세제 시설 Rent includes heat, hot water, sewer removal, one assigned parking, 2월1일 입주 가능. 월 \$3,000	 오피스 11 Hibbert St, Lexington Single Family 3Bed 1Bath 월 \$2,700	 오피스 999 Parker St, Unit 278 East Boston, Loft style 1Bed, 좋은위치, 다용도공간에서 11월 월 \$2,400	 세탁소 보스턴 북부 세탁소 간접적인 매출 Asking \$180,000	 비즈니스 리스 51 Union Square Scituate, 1,400sq.ft. 월\$2,500 + NNN
 Single Family 6 Salem Way Eastford 4Bed 2.5Bath 3,000 sq.ft., 1.2 Acres Out-door eq, lot, UNDER AGREEMENT	 델리&컨비니언스 좋은위치 성업중 Asking \$120,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9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폰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59회

인덕(人德)과 인덕(仁德)은 어디에서 오는가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람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인덕(人德)과 인덕(仁德)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거의 비슷하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귄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는 복을 말한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은 인복이 있다 없다 아니면 인덕이 있다 없다 말하곤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인복과 인덕이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변의 내 가족과도 편안하게 지내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나 자신의 문제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탓으로 돌릴 문제인가. 그것은 삶의 어려운 숙제거리이다.

인덕이란 남이 아닌 나 자신의 처세에 따른 문제란 생각을 한다. 그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밖에 있지 않으며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까닭이다. 인덕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어떤 일과 사물에 대해서 객관성을 찾지 못해 일을 그르칠 때가 있다. 그것은 너무나 주관적인 자신

에 몰입해 어떤 일이나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속에 깊이 빠져있기에 그렇다.

이렇듯 우리는 관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각도에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가 따라 자신의 처신의 입지가 세워지는 것이다.

서로 만나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금방 알게 된다. 그것은 언어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몸짓에서 이미 그 사람의 사고를 엿볼 수 있는 까닭이다. 현재는 지금이 아니다. 현재는 과거를 관통한 미래를 일컫는 까닭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굳이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아니 알고 싶지 않은 비밀이라든가 과거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친하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이 들려주지 않는 그 사람의 것을 굳이 알고 싶어 이리 캐고 저리 캐보려 애쓰지 말아야 할 것이 예의이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인덕(仁德)을 쌓는 덕목 중의 제일이다.

살면서 겪는 일이지만, 남에게 늘 베풀기 좋아하고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런데 그렇게 베풀고 나눈 만큼의 결과가 좋아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때를 만난다. 그 결과의 몫은 무엇이였을까. 무엇인가 댓가를 바라고 한 일은 더욱이 아니었을 터 자신은 가슴을 치며 인복이 없고 인덕이 없다

고 한탄하는 모습을 하는 것이다. 정말 인복이 없고 인덕이 없었던 것일까 말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분명 처음의 인복(人福)과 인덕(人德)은 있었기에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의 인덕(仁德)은 참지 못함에 있을 것이다.

인복(人福)과 인덕(人德)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는 복이라면 그와 마찬가지로 내 것을 나눌 사람이 많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렇지만, 인덕(仁德)은 그 많은 사람들의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생각을 한다. 하늘에서 똑같이 내려주신 복이라고 생각해보자.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 비유'를 들어보자. 결과는 모두가 각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나는 인복이 있네! 없네하고 인덕이 있네! 없네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의 삶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밖에서 남이 가져다준 것이 아니다.

공자의 말씀을 들어보자. 인덕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인가? 내가 어질고자 하면, 어짐에 이르느니라. 仁遠乎哉 我欲仁斯仁至矣(인원호재 아욕인사인지의)라고 하였다. 바로 답

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이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 우리네 삶의 여정에서 인덕(人德)과 인복(人福)이 있고 없음과 인덕(仁德)이 있고 없음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이다. 그렇다, 특별히 인덕(仁德)이란 쉬운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것은 마음에서 오랜 견딜과 기다림 그 후에 오는 참 인내의 열매라는 것이다.

옛 말속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지 않던가. 그것은 어떤 일에 있어 서든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일 게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사물이 되었든 간에 자신이 먼저 노력하라는 말씀이라 여겨진다. 오늘을 열심과 성실로 살다 보면 내일의 오늘에 감사하며 만족할 것이고 그 내일의 오늘은 또 다시 오늘의 어제가 되어 나를 든든하고 굳건한 터를 만들 디딤돌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 있어 지난 과거의 어제도 중요하게 거니와 미래의 내일이 있어 오늘이 더욱 희망에 차 있지 않은가. 오늘에 나는 어떤 인덕(人德)과 인덕(仁德)의 돌담을 쌓을까.

한담객설閑談客說: 마포종점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밤 깊은 마포종점
갈 곳 없는 밤전차.

2016.8

지독히 덥다. 처서處暑가 지났는데도 숨 쉴 수 없었다. 수십년전에도 서울의 한여름 더웠던 모양이다. 이상李箱이 헐떡이며 투정했으니 말이다. 이상李箱은 그런 중에도 전혀 권태롭지 않은 문장을 남겼다. 여기 옮긴다.

‘너무 더웁다. 나뭇잎들이 다 축 늘어져서 허덕허덕하도록 더웁다. 이렇게 더우니 시냇물인들 서늘한 소리를 내어보는 재간도 없으리라’ ... ‘어쩔 작정으로 저렇게 퍼러나. 하루

원종일 저 푸른빛은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 오직 그 푸른 것에 백치와 같이 만족하면서 푸른 채로 있다.’ (이상의 ‘권태’ 중에서, 이태준, ‘문장강화’)

이 달초에 한국방문중이었다. 마포에 갈일이 있었다. 그 날도 더웠는데, 상

전벽해라는 말을 실감했다. 넓은 마포대교를 건널때였다. 멀리 양화대교가 보였다. 지금은 다리이름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제2한강교라 불렸다. 유엔군 참전탑이 위용도 당당하게 서있던 다리였다. 십 수년을 그 다리를 건너 다녔다. 그때는 멀지않게 당인리 발전소에선 흰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도도한 한강물과 사뭇 조화로웠다. 그 당인리 발전소는 이제 지하로 내려 가는 모양이다. 지상엔 공원이 생긴다던가. 게다가 두 세계의 한강교

가 이제는 십수개 넘어섰으니, 대단하다. 그날 마포대교를 넘을 적에 당인리 발전소 굴뚝에서 흰 연기를 뿜어 올렸던가? 기억이 가물거린다.

마포라 한다면 옛 가요 ‘마포종점’ 일게다.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게다. 오래된 유행가인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은방울 자매가 노래했다. 가사가 아득하다. 마포는 전차 종점이었다.

‘밤 깊은 마포종점 갈 곳 없는 밤전차/비에 젖어 너도 섰고 갈 곳 없는 나도 섰다/강 건너 영등포에 불빛만 아련한데/돌아오지 않는 사람 기다린들 무엇하나/첫사랑 떠나간 종점 마포는 서글퍼라.’ 2절이 계속된다. 저 멀리 당인리에 발전소도 잠든 밤/하나 둘씩 불을 끄고 깊어가는 마포종점/여의도 비행장에 불빛만 쓸쓸한데/돌아오지 않는 사람 생각하면 무엇하나/곳은비 내리는 종점 마포는 서글퍼라.’ (정두수 작사, 박춘석 작곡)

전차를 처음 타본건 국민학교에 다닐 적이다.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 올라갔다. 그림으로만 보던 전차를 타본 것이다. 처음 타본 전차는 신기했고, 가슴 설레는 일대 사건이었다. 대도시 서울을 방문했다는 증표였으니 당연히 자랑스러웠다. 갈색 나무의자가 꽤 인상적이었고, 목을 빼고 지나치는 길거리를 열심히 쳐다봤던 기억이다. 전차에서 내릴적엔 무척 아쉬웠고, 커서 전차운전수가 될것인가 잠시 고민에 빠졌다. 전차요금도 얼마였는지 알 수 없다.

타고 있던 자동차가 어림짐작 전차종점 자리를 지나고 있었다. 이 근처 어디쯤이 전차종점이었을 거라 운전하던 친구 말해줬다. 다음엔 한강 유람선을 타보자고 그가 권했다. 만나라 사람처럼 내가 되물었다. ‘요새도 새우젓배가 마포나루에 들어 오는가?’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마태 9:1)



BOSTON NEHEMIAH INSTITUTE

BNI 평신도신학원은 지역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성 있는 신학강사진들을 통해 지역의 한인 평신도들에게 성서신학을 포함한 체계적인 기본 신학과정을 제공합니다.

2016년 가을학기 교과과정

요일 및 시간	학사일정	장소	과목명	교수
월요일 7:30-10pm	9/12-10/17	Central	고대 중동 문화로 읽는 신약	안창선 목사
	10/24-11/21	Central	이민신학 알아보기	이영길/유경렬 목사
화요일 7:30-10pm	9/13-10/11	North	아가서에서 읽는 하나님의 사랑	김성천 목사
	10/17-11/14	North	심리이론의 이해를 통한 관계 향상과 갈등의 대처	조유연 목사

Central클래스 : 보스톤한인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North클래스 : 나사렛사람의교회 900 Main St. Reading, MA 01867



공개강좌: Business as Mission

Business as Mission (비즈니스 세상속의 선교적 삶)
비즈니스의 상황속에 놓인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한 도전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와 동시에 새롭게 열리는 선교적 기회와 시대적 부르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서명구 교수 (University of Maryland)
일시: 2016년 9월 10일 (토) 오후 6시 45분
장소: 보스톤 한인교회

강좌중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Babysitter가 제공되며, 강좌후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7. 토지할당을 통한 동화정책 (4)

존 콜리어(John Collier) 인디언 국장(계속)
CCC의 인디언부에서는 인디언에게 트럭운전, 목공, 원예, 기계수리 등 기술교육도 실시하였다.

콜리어의 인디언 사랑은 그의 나이 35세이던 1919년에 시작되었다. 콜리어는 친구인 예술 애호가이자 백만장자인 Mabel Dodge 여사를 만나러 뉴멕시코의 타오스 푸에블로(Taos Pueblo)로 갔다. 타오스 푸에블로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될 만큼 옛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역사적인 마을이다. 콜리어는 그곳에서 인디언을 처음으로 만났다. 2년 동안 타오스의 예술인 마을에 머물면서 인디언의 역사와 현재의 상태에 대하여 공부하여 인디언의 고유문화가 백인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사라져가고 있음을 깨닫고 인디언의 전통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인디언을 백인 문화



〈콜리어(John Collier) 인디언국장(1933 - 1945)〉

에 동화시켜 미국인화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그릇된 정책이며 그 정책의 중심에 있는 도스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1923년 인디언방어협회(American Indian Defense Association)를 결성하여 인디언의 전통문화를 지키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메리엄 연구팀이 전면적인 인디언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게 된 것도 콜리어와 동협회의 꾸준한 노력 덕분이었다.

홈스테드법(Homestead Acts)

인디언과의 토지거래는 발견의 원리의 연장선상에서 연방정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인디언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땅의 처분은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 땅의 일부는 공공용지로 남겨 두고 많은 토지를 농민들에게 유무상으로 불하했다. 무상불하 방식을 규정한 홈스테드법 시행 이전에는 1841년에 제정된 토지선점법(Preemption Act)이 있었다. 정부 소유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매우싼 가격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었다. 이민자들이 보다 쉽게 토지를 소유하게 함으로써 자영농민(yeoman farmer) 육성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아예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는 법을 마련한 것이 바로 홈스테드법이다. 남부에서는 노예제

도에 기반을 둔 대규모 농장방식의 농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무상공여제도 도입을 반대하여 왔으나 남부의 주들이 연방을 탈퇴하는 바람에 1862년에 쉽게 홈스테드법이 통과되었다. 최초의 홈스테드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필요에 따라 더욱 조건이 완화된 홈스테드 관련법들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21세 이상으로서 미국정부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은 미국시민은 누구나 소정의 절차에 따라 5년간 농사를 지을 경우 160에이커(약 20만평)의 땅을 불하 받을 수 있었다. 농사짓기에는 부적합하여 목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640에이커까지 땅을 얻을 수 있었다. 1976년 연방 토지정책 및 관리법(Federal Land Policy and Management Act)의 통과로 홈스테드법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알라스카는 예외적으로 1986년까지 토지 무상공여가 허용되었다. 1862년에서 1986년까지의 기간 동안 160만 명의 자영농이 불하를 받았으며, 그 총면적은 약 110만 km²에 달했다. 이는 한반도의 약 5배에 해당하는 땅이다.

토지선점경주(Land Run 또는 Land Rush)

인디언의 땅을 연방정부가 인수하여 자영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할 경우 수많은 불하 희망자가 한꺼번에 몰려온다면 누구에게 홈스테드를 공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토지선점경주라는 코미디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토지선점경주는 오클라호마에서 모두 일곱 차례 실시되었는데 최초의 경주는 1889년 4월 22일에 있었으며, 가장 큰 규모의 경주는 1893년 9월 16일 체로키로부터 양수 받은 땅(Cherokee Strip 또는 Cherokee Outlet)에서 벌어졌다. 토지선점경주의 대상이 된 땅의 크기는 모두 약 33천 km²로서 남한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었다.

첫 경주는 1889년 4월 22일 정오 시간에 5만 명의 참가자가 일제히 출발하여 자신이 원하는 필지로 달려가는 것이었는데, 미리 마음에 둔 땅에 몰려 숨어들어 출발시간에 맞추어 나타나 자신이 먼저 도착했다고 우기는 사례가 많아서 토지관련 다툼이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경주가 개최된 곳에서는 불과 반나절 만에 인구 만 명의 도시 두 개(Oklahoma City와 Guthrie)가 생겨났다고 한다.



〈오클라호마 토지선점 경주(Oklahoma Land Rush of 1889)〉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42 화랑세기花郎世紀, 4세 풍월주風月主 이화랑二花郎(8)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그 때 비조공比助公의 아들 문노文弩 또한 호걸로 격검을 잘했다. 이화랑공은 사다함으로 하여금 문노에게 검을 배우게 했다. 문노가 말하기를 “검은 곧 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인데, 어찌 고귀한 사람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하자, 이화랑이 말하기를 “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으면 곧 어찌 능히 만인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 아이는 호협豪俠을 좋아하니 비록 무리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 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내가 그를 보호하라” 했다. 문노가 이에 낭도 오백으로 따르니, 그 위세가 토합보다 컸다.]

생물년이 미상인 문노는 후에 8세 풍월주가 된다(538년생, 606년몰이란 기록도 있다). 아버지는 비조부이며 어머니는 가야국의 왕녀인 문화공주이다. 아버지 비조부는 선혜왕후(제21대 비처왕의 후)의 아들이다. 원래 문화공주는 비조부의 아버지 호조好助의 첩이었으나 비조부와 밀통을 하여 문노가 태어났다. 할아버지 호조 역시 선혜왕후와 사통을 하여 문노의 아버지 비조부를 낳았다. 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윗대들의 문란한 것 같은 성관계에 의해 출생한 문노이다. 당시 사회상으로 비취보

면 문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났다. 그리고 문노는 어머니가 가야의 공주였고, 할머니가 왕후였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밀통과 사통을 하여 태어난 때문인지 골품이 없었다. 그는 나중에 골품을 얻었다.

문노의 무예와 검술은 수 많은 화랑 중에서도 아주 걸출하였다. 그의 격검은 대적할 낭도가 없었으며 특히 그의 검술은 신기에 달했다고 한다. 무예도보통지에 보면 양날의 칼은 검劍이고 외날의 칼은 도刀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문헌들을 보면 고서일수록 검劍으로 표기되었고 후대로 오면서 검과 도를 병기하고 있다. 이 점은 좀 더 연구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과연 삼국시대에는 양날의 칼인 검만 사용했는지? 아니면 검과 도를 모두 검으로 통용했는지? 또한 만일 후대에 와서 도刀를 병기로 이용했다면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도 일말의 호기심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신기神技의 검술을 소유한 문노에게 위화랑은 사다함으로 하여금 검술을 배우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노는 “검술은 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인데, 어찌 고귀한 사람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한 말은 여러가지를 함축하고 있다. 먼저 문노와 사다함의 신분의 고하가 있었으며, 당시에도 역시 나라를 다스리는데는 무력 뿐만이 아닌 문치의 묘가 중요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위화랑의 말은 명연

이 아닐 수 없다. “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으면 어찌 만인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문노로 하여금 사다함을 호위하게 하였다. 그리고 문노가 500명의 낭도들을 데리고 사다함을 따랐다. 그 후 사다함이 문노로부터 검술을 익혔는지 아닌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곧 가야 정벌에 참전하여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다. 이 때 사다함은 문노에게 같이 출전하자고 했지만, 문노는 가야를 외조의 나라라고 하면서 출전하지 않았다. 문노의 어머니 문화공주는 가야국의 왕녀이다. 야국(외국)왕이 조공한 왕녀를 범함왕이 신하인 호조(문노의 할아버지)에게 내렸다는 기록도 있다. 어쨌든 문노는 가야정벌에 출전하지 않았다. 5백의 낭도를 데리고 풍월주 이화랑의 명으로 부제인 사다함에게로 왔지만 문노는 사다함을 보호하면서 자신의 독자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보면 이 가야정벌이 562년(진흥왕 23년)의 일이다. 화랑세기에 나오는 사다함의 가야정벌 사실史實이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앞뒤가 잘 맞지 않는 화랑도 설치의 시기를 명쾌히 해결해 준다. 삼국사기에는 576년에 화랑을 설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해는 진흥왕이 죽은 년도이다. 진흥왕은 540년에 즉위하였고 그 해 지소태후가 화랑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격검擊劍의 호걸 문노의 휘하에는 걸출한 낭도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김흠운(179)과 승려 동밀은 문노의 격검을 이은 수제자들이다.

179) 김흠운金歆運(? ~ 655년,金歆運으로도 기록한다)은 신라의 군인이었다. 내물왕의 8대 손으로, 태종무열왕의 사위이며, 신문왕의 장인이다. 아버지는 잡찬 김달복이다. 어려서는 화랑 문노(8세 풍월주)의 낭도로 지냈다. 655년 백제와의 전투에서 조천성助川城(현재의 충북 영동군의 비봉산성)을 공격하다가 전사하였다(삼국사기).

한편 화랑세기에서는 그의 출생에 관하여 자세한 기록이 있다. 신문왕 때의 반역자인 김흠돌金歆突의 동생이며, 어머니는 김유신의 셋째 누이 김정희이다. 부인은 요석공주이며, 두 딸을 두었는데 첫 딸은 문무왕의 장남인 소명태자의 정혼자였으나 혼인 전에 사망하였고, 둘째 딸은 신목왕후(신문왕의 비)로 683년에 계비로 책봉되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IMAGINATION

July 14 - September 30, 2016



주보스턴총영사관 300 Washington St. Suite 251 Newton, MA 02458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雲 (운)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人子)가 구름(雲)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 “At that time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a cloud with power and great glory.”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 “For it will come upon all those who live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Jesus Christ said) “Be always on the watch, and pray that you may be able to escape all that is about to happen, an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술 만드는 금복주와 3개 계열사가 회사 창사(創社) 이후 1957년부터 59년간 여직원이 결혼할 경우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 그만두지 않을 경우 직원들이 따돌리거나 회사가 직급에 맞지 않는 부서로 따돌려 퇴사(退社)를 강요했다는 사실을 국가인권위가 확인했다.

24일 국가인권위 발표에 의하면 경조휴가를 줄 때도 친가(親家) 경조사만 인정하고 외가쪽은 인정하지 않았다.

금복주 관련사들의 정규여직원 중 기혼여성이 인권위에 진상을 조사 의뢰한 사실도 한 명 뿐인데 그는 '사원'에서 '주임'으로 승진한 유일한 여성이라.

홍보팀 디자인어로 근무하던 이 직원은 승진 후 결혼 계획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를 강요받았으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했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결혼을 빙자해서 퇴직 규정을 두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제된다.

여성가족부 또는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전근대적 기업 경영을 묵과했는지 또는 알고도 묵살한 것인지는 앞으로 귀추가 논의될 것이지만.

저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10여년 동안 150조(兆)원을 투자해온 정부의 대책을 가소롭게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차별이란 차원에서 용납받기 힘들 것. 제2금복주사건을 막는 길을 찾는 것이 정부의 긴급한 숙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총선에 당선된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 ‘자기 정치’를 한다고 대통령을 더 힘들게 만들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애와 허탈감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유 의원을 원내대표에서 사임케 했을 때 배신의 정치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사연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 선거를 치렀고 많은 사람들이 당선이 됐는데 당선이 되고 나서는 ‘자기 정치’한다고 갈라서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같이 어렵게 당선도 되고 또 그때(저를 앞으로) 도와 주겠다고 했으면 어려운 시절에 힘이 돼주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사람 사이 관계가 신뢰가 바탕이 되고 가치가 서로 맞아 일을 해 나가는 건데 그게 바뀌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국민 앞에 이렇게 하겠다 했으면 국민한테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고 사람 관계를 신뢰를 가지고 가야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親朴)계에 대해선 “사실은 제가 친박을 만든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박이란 말 자체가 특히 선거 때 자기의 선거 마케팅으로 그냥 만들어 가지고 친박이라고 그랬다가 탈박(脫朴)이라고 그랬다가 쫓박(쫓린 친박)이라고 그랬다가 별별 이야기를 다 만들어 내면서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제가 거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도 했다.

박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어 19대 국회 때 전혀 협조를 안해주고 계속 반대 목소리만 낸 사람도 (이번 총선때) 대통령 사진을 (앞세워) 마케팅을 하면서 다녔다”면서 “그래도 제가 그

걸 하라 마라 이야기를 안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친박에 박(朴)자가 들어간 자체가 다 자신의 정치를 위한 선거 마케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라 그러다고 될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대통령은 탈당파의 복당(復黨)문제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 새누리당이 (아직) 안정이 안 돼 있다”며 “지도 체제가 안정이 되면 그때 협의해 판단할 문제”라 했다.

현직 청와대 민정 수석이 수사 의뢰를 당하는 일이 결국 현실화 됐다.

김대중 정권시절 신광옥 수석이 민정수석을 마치고 다른 정부직에 있다가 수사를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현직 민정수석이 수사에 오른 것은 우병우 수석이 첫 케이스다.

청와대는 분명한 까닭없이 우 수석을 감싸고 돌기에 힘을 쏟았다.

지난달 21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나가기 바란다”는 말까지 했었다.

개각때 (8월 16일) 경질할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민정수석 개인에 관한 문제가 청와대 전체의 위기로 번졌고 이를 감싸고 있는 박 대통령의 위기로까지 번질 조짐(?)인가?

청와대 밖에서는 두꺼운 인(人)의 장막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고 그 중심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다는 말까지 과다하다.

어떤 혼란이나 곤경(困境)이라도 雲이 씻어낸다.

雲: (구름운): 山川氣陰陽聚爲一 = 구름은. 크게는 비우(雨)와 움직일운(云) 두글자의 합성어다.

1. 雨는 물(水)이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

의 신분을 밝히면서 인간과의 합성(合成)으로 사람들 사후생(死後生) 즉 영생(永生)의 바탕이 된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 요한복음 4:14

2. 云은 雨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 임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두번째(二) 삼위일체 하나님(一하나님 아버지, 二예수 그리스도 아들, 三성령님)을 증거하신 것.

3. 云에 예수님(二)과 함께 하는 우리 인간들 곧 人:(1)자영(自營): 사사사 (2)我也(아아) 나사를 가르킨다.

되풀이하면 물(雨: 水)을 대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二(두번째 하나님)으로 나(我) 즉 (人)과 함께 하시면서 구름(雲)으로 "하늘 나라(天國)"를 늘 예고하신다.

이유는 매일 일기(日氣)를 쳐다볼 때마다 "물(雨)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二)와 내(人)"가 雲을 그림으로 표시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를 믿는 신앙인들은 구름(雲)을 쳐다 볼 때마다, 또 물을 마실 때 혹은 술(酒)을 삼킬 때마다 "내 물을 마실 때마다 영생을 샘솟게 하는" 말을 바꾸면 "물과 술이 아니라 영생(永生)을 마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셔 죽음을 잊고 사는永生人이 된다"면 예수님이 구름처럼 내 삶을 동행하실텐데...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arm, TBO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사드 한반도 배치 지지 결의문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하여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THAAD·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한 것은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우리는 증대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북한의 핵과 각종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국가의 안위와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북한은 사드 배치 결정 엿새 만에 동해상으로 스커드와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다는 협박으로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남남갈등 시도를 단호히 분쇄하고 국가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국론결집에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 3 국도 겨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방어적으로 운영된다. 주변국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을 심분 이해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비판보다 그 원인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사드가 주민 건강과 환경에 무해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

이제는 잘못된 정보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갈등이 증폭되는 행태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드 배치에 따른 남남갈등을 막고 국론결집과 국민통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 북한은 탄도 미사일 발사를 통한 국론분열 획책을 중단하고, 조속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 주변국은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 우리는 국론결집과 국민통합에 앞장서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2 만 자문위원과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을 다짐한다.

2016년 8월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45)

브렉시트와 투자교훈

“브렉시트 이후 주식시장이 처음으로 안정권으로 진입했다. (Wall Street gains ground for first time since Brexit, The Washington Post, June 29, 2016)” 라는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나왔습니다. 브렉시트 결정으로 다우 존스가 610 하락(6/24), 260 하락(6/27), 269 상승(6/28)하고 바로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만 봐서는 주식시장이 하락장에서 한참 머물다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회복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하락한 것은 단 2일이고 3일째에 상승했습니다. 주식분석가는 소제목으로 “대폭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FALLOUT HAS ONLY BEGUN, ANALYSIS SAY Investment officer: I don't think the worst is over.)” 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한순간에 대폭 하락하면 투자자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이러한 투자자 마음은 신문, 방송, 등 미디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일이 궁금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더욱 자극적인 표현으로 일반인의 관

심을 끕니다. 그래야 광고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는 ‘영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경제 대국’ 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경제 대국이 유럽 연합에서 빠져나오면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은연중 암시합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5번째인 경제 대국’ 이란 미디어에서 말한 것처럼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전체 경제력을 100%로 생각할 때 영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단 4%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브렉시트로 영국 화폐가 폭락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면 미국 상품을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불안감을 충분히 조성할 만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미국의 총 수출량은 2.4 trillion입니다. 이것은 수출상품과 서비스 종목을 전부 합한 숫자입니다. 이중 영국에 수출하는 금액은 5.5 billion으로 미국 수출량의 0.3%입니다. 섬나라인 영국이 지구 상에서 사라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미국의 수출이 99.7%로 적어지는 것입니

다. 브렉시트의 영향은 미디어가 말하는 것보다 미국 경제와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우 존스가 하루에 610이 하락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주식시장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2주 후에 1,100 이상 다시 상승한 주식시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분산투자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10.7%였는데 일반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단 3.8%로 약 7%의 수익률을 매년 받지 못했다고 모닝스타(Morningstar)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런 결과의 가장 큰 이유가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투자하고 내려갈 때 팔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7% 수익률이란 약 10년마다 투자 돈이 두 배로 불어납니다. 50만 불이 30년 후 380만 불로 불어날 수 있는 돈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다우 존스가 610과 508로 각각 떨어졌습니다. 투자자의 선택은? 투자자 마음으론 610보다 조금 하락한 508을 선택할 것입니다.

다우 존스가 브렉시트 여파로 하루에 610이 하락(6/24/2016)했습니다. 다우 존스가 18,000이었기에 3.4% 하락입니다. 다우 존스

508 하락(10/19/1987)했습니다. 다우 존스가 2,300일 때는 무려 23%가 하락한 것입니다. 투자 돈 ¼이 폭락한 것입니다.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다우 존스 하락을 말할 때 실제 숫자보다는 퍼센트로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식시장 29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오름과 하락을 반복했지만 결국에는 2,300에서 18,000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어는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투자자의 감정을 부추기어 신문이나 잡지 하나를 더 팔려고 노력합니다. TV 방송이나 인터넷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제로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주식시장이 하락 혹은 폭락할 때 투자자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폭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예상한 주식전문가의 의견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투자자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관적인 주식시장 소식은 잠시 멀리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에이전트와의 연결다리

부동산 에이전트의 근본 임무는 자신을 고용한 손님 주택매매 목적을 달성시켜 주는 것이다. 셀러에게 고용되면 셀러에게 최고의 가격으로 주택을 빨리 팔아야 하고 바이어에게 고용되면 최저의 가격으로 원하는 주택을 빨리 구입하게 도와줘야 한다. 이는 간단하고 참으로 쉬운 임무이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 않다. 돈이라는 아주 예민한 놈이 손님과 부동산 에이전트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셀러가 집을 팔기로 결정하면 부동산 에이전트와 리스팅 가격과 마케팅 전략을 상의한다. 그리고 에이전트를 고용한다. 이상적인 경우에는 에이전트의 능력과 경험을 기준으로 고용하겠지만 현실은 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비싸게 팔겠다고 하면서 가장 낮은 커미션을 요구하는 에이전트가 경험과 능력의 에이전트보다 쉽게 선택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한다. 그런데 돈보다도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신뢰다. 신뢰는 사전에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말한다. 에이전트 입장에서 손님에게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안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확한 정보나 자신의 의견이 손님에 원하는 것과 같지가 않으면 가령 매매 가격이 너무 높은 경우 에이전트는 딜레마에 빠진다. 정확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해서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도 현실을 보여 주느냐 아니면 그냥 입다물면 있느냐 원인은 손님과 에이전트 사이에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신뢰가 존재하면 손님은 에이전트의 제안이 곧 자신의 참 이익임을 인지하고 존중해 줄 것이고 에이전트는 거침없이 임바른 소리를 제안할 것이다. 그런데 손님과 에이전트의 관계가 신뢰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돈(커미션과 판매제시액수)으로 되어 있으니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돈의 연결고리가 끊기면 손님과 에이전트의 관계도 끊기는 것이다.

한 손님이 나에게 주택 리스팅을 의뢰했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빨리 제값을 받고 파는 것이었다. 그 손님은 한 달 뒤에 다른 주로 이사하기 때문에 제값 받는 것 만큼 빨리 파는 것이 중요했다.

그 손님은 이미 나와 오랜 교류로 나에게 대한 신뢰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른 손님들에

게는 권하지 않는 제안을 했다.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높이자였다. 바이어 에이전트가 자신의 손님들에게 집을 보여 주는 우선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바이어 에이전트들을 간접적으로 셀러의 에이전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커미션을 1% 더 주기로 했다. 그리고 다른 이웃들이 오랫동안 매물로 주택을 팔지 못할 때 단 열흘 만에 계약서를 받고 판매했다. 이 성공은 절대로 에이전트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는 대부분의 에이전트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가 성공의 열매를 맺는 결정적 요건은 손님과 에이전트 사이에 신뢰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이에는 에이전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또한 최소한 악의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난 지난 7년간 뉴 에이전트를 교육하고 양성했다. 참 이상하고 신기한 현실은 뉴 에이전트가 3년째 되는 해에 제일 많이 한다. 그리고 3년 동안 어떻게 손님과 연결 고리가 형성 됐느냐에 따라 그 에이전트가 계속 잘 하는지 아닌지를 3년 후에 알 수 있다. 많은

에이전트를 발굴 했지만 계속해서 손님과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에이전트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들이 계속 잘하고 있는지 현실을 알고 싶은 고객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곡성〉 〈부산행〉에 이어 몰여를 대미를 장식할 흥행 대작
대한민국의 안전이 또다시 무너졌다!

"나 아직 살아있는데..."

★★★★★
박스 오피스 1위

하정우표 유머와 김성훈의 디테일이 빛은 재난 영화의 신세계
- 스포츠 한국 모션점 기자 -

몰여를 가장 의미 있는 작품, 긴장과 유머 사이에 감동까지 더하다
- SBS 김지혜 기자 -



FROM THE DIRECTOR OF A HARD DAY

터널 TUNNEL

하정우 배두나 오달수 〈끝까지 간다〉 김성훈 감독
SHOWBOX presents WELL GO USA ENTERTAINMENT distribution

8월 26일(금) 대개봉

AMC Loews Boston Common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617) 423-5801

상영관 정보 및 티켓 예매 | TUNNEL-MOVIE.COM [f FACEBOOK.COM/HITKMOVIE](https://www.facebook.com/HITKMOVIE)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94 정정 via 이메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미국 입국 시 I-94라는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물론 현재는 전산작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입국 시 따로 받으시는 서류는 없고 온라인으로만 조치가 가능합니다.

미국 체류 기간 동안의 모든 이민과 관련된 행위는 이 I-94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체류할 수 있는 기간, 체류 목적 및 활동 범위가 이 I-94에 기재된 대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작업이 사람이 하는지라 종종 (특히 입국자들이 많은 시기엔 상상 보다 많은 수의 실수가 생깁니다) 잘못된 정보가 I-94에 기재됩니다. 문제는 I-94에 기재된 내용이 실수라도 실수를 개정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정보 그대로 신분과 체류 기간이 제한됩니다.

여권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계시면 본인의 I-94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 늘이라도 본인의 I-94를 확인하셔서 입국날짜, 체류할 수 있는 기간, 입국신분 (class of admission) 이 다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재 내용에 실수가 있다면 반드시 개정하셔야 합니다.

개정은 반드시 공항에 있는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입국심사국) 에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입국 심사국은 이메일로 이러한 개정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개정 신청은 본인이 입국 심사를 받은 입국 심사국 또는 거주/체류하고 있는 곳에 위치한 입국 심사국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의 로간 공항, LA 공항, 시카고 공항, 휴스턴 공항, 시애틀 공항의 입국 심사국이 이메일로 개정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보스톤 일대 거주/체류자 또는 이들 공항으로 입국하신 분들은 직접 가지지 않고도 이메일로 I-94의 실수에 대한 개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민 사기

최근 다시 이민과 관련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8월24일 이민국은 이런 사건에 주의하시라는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현재 이민국에 계류 중인 신청서의 신청인 정보들이 유출됐는지는 조사 중이지만, 이민국 직원을 사칭해 신청인들에게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서류 요청과 이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극히 적은 경우지만 이민국에서 때로는 신청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절대 전화로는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 이민국은 언제나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사실, 이민국이라고 하고 전화를 받게 되면 당연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100% 사

이민 소식 (2016년 8월 넷째주)

기이니 대응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계속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이민국에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 신고가 부담되시면 보스톤 코리아 등 사회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기가 범죄이긴 하지만 이민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사람 또는 한 가정에 간절한 부분을 이용해 사기치는 분(?) 들은 이 사회에서 뿌리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 취업 이민 신청 주의 요망

국무부는 작년부터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 또는 Consulate Process에 대한 순서를 정하는 VISA Bulletin을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표(Chart)는 준비를 시작하는 날짜들을 보여주고 있고 두번째 표는 실제로 I-485 또는 Consular Process의 이민비자가 발행될 수 있는 날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를 시작하라는 첫 번째 표의 날짜들이 모든 순위에서 두 번째 표보다 빠릅니다. 이민국은 위 두 표들을 기준으로 따로 I-485를 받아들이는 날짜표를 매달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 기간의 단축을 위해 2017년도 회계년도 부터 (2016년 10월1일 시작) 모든 I-485 신청 가능 날짜를 첫 번째와 두 번째 표를 같이 고려하지 않고 서류 준비 시작 날짜를 나타내는 첫 번째 표에 맞추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100% 확실한 것은 아니고 노력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

면 모든 I-485의 신청가능 날짜가 기존보다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조치가 있을 때 마다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일 년에 영주권을 줄 수 있는 쿼타 (전체 숫자) 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10월에 (새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날) 평소보다 많은 I-485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11월 또는 12월이 되면 다시 표에 나타난 날짜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10월에 보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월 이후 즉, 11월 또는 그 후에야 I-485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보다 더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고, 11월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현재 잘 유지하고 계시던 합법 신분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1월 이후 문호가 후퇴되어 I-485를 신청 못하게 되면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중단하셨기 때문에 신분미지자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영주권 신청도 힘들어지고요.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이민을 몇 년 전에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는 10월이면 문호가 빠르게 진전되어서 아마 I-485를 신청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다니던 학교를 9월에 그만둡니다. 60일 grace period가 있으니 10월에 I-485를 못넣어도 11월에는 넣을 수 있다는 계산으로요. 11월까지도 문호가 열려 있으면 이분은 아무 문제 없이 영주권 신청하시고 학생 신분도 유지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1월에 갑자기 문호가 후퇴하게 되면 이분은 신분유지에 실패하게 되고 차후 영주권 신청도 크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재입국 금지 기간 면제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의 확대 그리고 그 뒷 이야기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8월 29일부터 시민권자 직계가족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재입국 금지 기간 면제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가 영주권자 직계가족에게 확대됩니다. 이 법안의 확대가 결정되기까지 그 뒤에는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29일 발표를 앞두고 오늘은 법안이 결정되기까지 있었던 잘 알려지지 않은 뒷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가족 초청 혹은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때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이라면 미국 내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 내 신분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 해외로 출국하여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한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불법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미국을 출국하는 순간 3년 재입국 금지 (3 year unlawful presence bar)가 적용되어 해당 기간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불법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재입국 금지 기간은 10년이 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기존의 재입국 금지 기간 면제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입국이 거절되면 시민권자에게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출국 전에 불법 체류 기간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제를 받고 나면 재입국 금지 조항의 영향 없이 해외의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미국에 바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직계가족은 불법 체류 기간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조건이 다 충족 되어도 3년 혹은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영주권 신청조차 기피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9일 확대안은 이러한 영주권자 직계가족에게도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심의 과정 중, 이민 변호사, 입법가 그리고 이민국 관계자가 가장 격렬하게 논쟁했던 내용은 "극심한 고통"에 대해 더 명확한 정의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극심한 고통"에 대한 더 명확한 정의나 예시를 요구했고 이민국 측에서는 힘들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결국, 법 규정에 대한 해석은 이민 항소위원회(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로 넘어갔고 이민 항소위원회는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시가 오히려 판단에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기존의 약간 추상적인

정의가 확대안에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의 "그렇다고 믿을 만한 이유(Reason to believe)" 기준에 대한 논쟁도 매우 격렬했습니다. 재입국 금지 기간 면제에서는 불법체류 기간에 대해서만 면제를 합니다. 하지만, 범죄경력이나 이민 사기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 다른 조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영주권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안에서 이민국은 불법 체류 외에 영주권 거절사유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경우, 즉 "그렇다고 믿을 만한 이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재입국 금지 기간 면제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존 거절 결정들을 보면 불법 체류 외에 영주권 거절사유가 있을 것이라 단순히 의심되는 경우, 즉 "그렇다고 믿을 만한 이유"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거절을 하는 경우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번 확대안에서는 이런 모호한 기준을 삭제하여 "극심한 고통"의 조건만 충족하면 승인을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경력이나 이민 사기 기록이 있어도 면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사관 인터뷰나 그 이후 절차에서 불법 체류 기간 외에 영주권 승인

이 불가한 다른 이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민국의 승인 결정은 바로 취소가 될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다른 절차를 통해 불법 체류 외의 영주권 승인 거절 사유에 대한 면제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희 고객님들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 내용이고 이번 법안 통과에서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제안을 한 "프리미엄 프로세싱(Premium Processing)"확대 적용안은 거절되었습니다. 이민국은 특정 영주권 신청 절차에 대해 추가 수수료를 받고 빠른 진행을 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재입국 금지 기간 면제에도 이러한 급속처리가 가능하도록 요청했으나 이 절차에 필수적인 "신원조사(Background Check)"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민국에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급속처리는 힘들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기존 법안과 동일하게 확대안에서도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재입국이 허락되지 않으면 영주권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여전히 신청자에게 있고 증명 수준도 기존의 수준, 즉 "증거들이 극심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우세하게 보여주는 정도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를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SONGLAWFIR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com



송동호 대표 변호사

법률업은 일반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판단 하나는 고객 케이스에 신의 한수가 되기도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신중함의 중요성을 늘 생각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저희의 신중함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케이스 하나 하나에 장인 정신으로 다가갑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은
오늘도 고객의 케이스를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뉴저지 본사 소속 변호사 및 Summer Associates

기업 고객

국제법
금융법
노동 및 고용법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상법 및 M&A
소송
이민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적 재산법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가정법
노동 및 고용법
부동산
사고 상해
상법
세금, 상속, 유언
소송
이민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적 재산권
디젤, 지역 법원 관련 업무
파산
형법

T | 617.489.1327 MA@SONGLAWFIRM.COM

MA OFFICE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songlawfirm1
 songlawfirm LLC
 songlawfirm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제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런드로맷(Laundromat) 찜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제
항상 리스킹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159,000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뉴턴지역 드롭 스토어 연매상 \$162,000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우스터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225,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보스톤 서쪽 세탁소 셔츠유닛만, 고급몰 안,연매상 \$148,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4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여러가지 컨비니언스 스토어 소유, 문의바람

메인 포틀랜드 컨비니언스 스토어, 연매상 \$700,000 좋은 위치, 변화한 플라자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Full Plant, 연매상 \$550,000

드롭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보스톤 Full Plant+드롭,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193,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로터리 (복권)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2016 보스톤 교육원 여름방학 프로그램

I. SAT, ACT 정규반

- 기간: 6.20~8.19
(3주단위, 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처음 시험준비를 시작하는
새내기 학생을 위한 class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종합프로그램(8:00~8:30)
 - 과학별 기본개념과 문제유형 숙지
 - 실전연습문제 풀이및 리뷰
 - 최고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및 학사관리
 - 다양한 선택 가능성

II. SAT, ACT 실전반

- 기간: 6.20~8.19
(3주단위, 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단기간내 목표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class
 - 반복적인 모의고사를 통한
실제시험의 적응도를 높임
 - 많은 실전문제 확보

III.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 7.11~8.19
(3주단위, 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및 어휘에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